국어 실력은 실전 감각이 좌우합니다.

국어 실력을 탄탄하게 다지고 싶다면
국어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독서는 어느 문단을 집중해서 읽으면 좋을지, 문학은 어떤 경향의 작품이 출제되는지,
문법은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구성되어 나오는지
각 영역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국어 영역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가 국어 영역이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고스란히 모았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해설편에서 맞은 이유와 틀린 이유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자이스토리는 지문을 자세히 분석하여 필요한 개념을 콕 집어내고
선택지의 근거를 한눈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학습 요소를 곳곳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설명해 주고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를
꼼꼼하고 친절하게 해설해 두었습니다.
해설을 잘 활용하면 국어 1등급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와 함께 국어 **1**등급을 향해 갑시다!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12일]

★ 최근 3개년 학력평가를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 실전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 꾸준히 풀면 국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Day	회차 및 쪽수	틀린 문제 / 헷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01**회–10~29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2	**02**회–30~51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3	**03**회–52~73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4	**04**회–76~96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5	**05**회–97~117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6	**06**회–118~138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7	**07**회–140~160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8	**08**회–161~182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9	**09**회–183~204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10	**10**회–206~226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11	**11**회–227~248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12	**12**회–249~271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번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김효진 경기 현화고
공보윤 경기 성호고
권하라 서울 대일외고
노승연 서울 경기고
배지은 서울 창동고
손명수 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신다은 서울 염광고
안다성 서울 한영외고
이세영 경기 수일고
이혜정 서울 중대부고
최슬지 서울 영등포여고
최정현 경기 오남고
허예현 경기 평택여고

최신 기출문제 동영상 강의
자이스토리 유튜브 채널
한보람 선생님

[감수진]

강병석 서울 옳:바른학원
강봉진 남원 하늘중학교
강신석 양평 우리동네국어쌤
공초롱 광주 임곡중학교
곽승협 울산 지렛대 학원
구찬미 의정부 맨투맨학원
김기은 대구 낭중지추국어논술
김도완 광주 도완국어학원
김미정 서울 김미정국어
김상언 창원 창원사파고등학교
김성곤 구미 김성곤대입국어학원
김종길 서울 김종길국어논술학원
김진주 부천 코드국어논술학원
김진희 광주 김진희국어교습소
남미래 서울 마이국어논술
노정은 대전 대전대성고등학교
문상철 부산 지식인 학원
문지현 서울 동일여자고등학교
박미진 평택 개념원리러닝센터& 개념국어학원
박상우 광주 화수분아카데미
박상준 부산 필(必)통(通) 국어학원
박윤선 광주 규장각국어학원
박재형 서울 메가스터디러셀 (대치,강남,중계)
박태순 서울 참좋은학원
반현태 인천 BPL_EDU
석주형 대구 고대학원
성혜련 안양 공즐학원
송재우 서울 아이엠쌤
송지호 파주 크림슨교육
신경진 파주 어유중학교
신혜영 부산 수오재
안보람 서울 강남보람국어
유연주 서울 동일여자고등학교
유영삼 대전 여름수국어전문학원
윤진아 대구 용산포인트정석속독학원
이대건 서울 탑스터디학원
이상명 인천 국어학습 컨설턴트
이승준 창원 창원여자고등학교
이연희 울산 에이플러스학원
이원정 서산 최용훈국어전문학원
이형근 대구 알찬강의학원
임현정 시흥 신천초등학교
장기윤 구미 장쌤국어입시학원
장보현 서산 국어학습 컨설턴트
전승호 화성 비봉고등학교
전욱진 구미 김선일 국어학원
정서유 고양 바른공부학원
정수정 부산 1등급국어교습소
제달성 대구 봄날 국어
조상경 파주 운정고등학교
조효준 천안 조효준국어학원
주홍재 제주 즐거운공부학원
차장우 부산 부산 국어학원
채옥희 광주 본국어
최윤기 양산 혜윤국어논술학원
최혜문 수원 수원부사관장교학원
한광희 세종 한쌤국어
한보람 대구 한보람국어
허성완 화성 동량재학원
홍성유 양주 덕정 한샘학원

차 례

Ⅰ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회 모의고사 – 2023년 3월 10
문법·어휘 완성 TEST 29

2회 모의고사 – 2022년 3월 30
문법·어휘 완성 TEST 51

3회 모의고사 – 2021년 3월 52
문법·어휘 완성 TEST 73

동아리 소개/서울대 Caffe 74

Ⅱ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4회 모의고사 – 2023년 6월 76
문법·어휘 완성 TEST 96

5회 모의고사 – 2022년 6월 97
문법·어휘 완성 TEST 117

6회 모의고사 – 2021년 6월 118
문법·어휘 완성 TEST 138

Ⅲ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7회 모의고사 – 2023년 9월 140
문법·어휘 완성 TEST 160

8회 모의고사 – 2022년 9월 161
문법·어휘 완성 TEST 182

9회 모의고사 – 2021년 9월 183
문법·어휘 완성 TEST 204

Ⅳ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0회 모의고사 – 2022년 11월 206
문법·어휘 완성 TEST 226

11회 모의고사 – 2021년 11월 227
문법·어휘 완성 TEST 248

12회 모의고사 – 2020년 11월 249
문법·어휘 완성 TEST 271

어휘 총정리 394

빠른 정답 찾기 416

등급컷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 국어

Ⅰ 3월 전국연합

1회 [2023년 3월 시행]

· 나의 점수 :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79	136
2	70	126
3	61	116
4	51	106
5	39	93
6	29	82
7	22	75
8	18	70

2회 [2022년 3월 시행]

· 나의 점수 :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5	131
2	89	126
3	79	117
4	67	107
5	53	95
6	39	83
7	26	72
8	18	65

3회 [2021년 3월 시행]

· 나의 점수 :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76	138
2	66	126
3	56	115
4	47	104
5	38	93
6	30	84
7	23	76
8	19	71

Ⅱ 6월 전국연합

4회 [2023년 6월 시행]

· 나의 점수 :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6	134
2	78	126
3	68	117
4	57	107
5	43	94
6	29	81
7	21	74
8	17	70

5회 [2022년 6월 시행]

· 나의 점수 :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1	133
2	83	126
3	73	117
4	61	107
5	46	94
6	32	81
7	21	72
8	18	69

6회 [2021년 6월 시행]

· 나의 점수 :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4	131
2	88	126
3	78	118
4	66	108
5	49	94
6	32	80
7	23	72
8	19	69

Ⅲ 9월 전국연합

7회 [2023년 9월 시행]

· 나의 점수 :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5	136
2	76	127
3	66	117
4	54	106
5	41	93
6	29	82
7	21	74
8	16	70

8회 [2022년 8월 시행]

· 나의 점수 :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4	136
2	74	127
3	64	117
4	53	106
5	41	94
6	29	82
7	22	76
8	18	72

9회 [2021년 8월 시행]

· 나의 점수 :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0	132
2	82	125
3	73	117
4	62	107
5	48	95
6	33	81
7	23	72
8	18	68

Ⅳ 11월 전국연합

10회 [2022년 11월 시행]

· 나의 점수 :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0	134
2	82	126
3	71	117
4	60	107
5	46	94
6	32	82
7	24	75
8	17	68

11회 [2021년 11월 시행]

· 나의 점수 :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6	130
2	90	125
3	81	118
4	69	109
5	52	95
6	33	80
7	22	72
8	17	68

12회 [2020년 11월 시행]

· 나의 점수 :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0	133
2	82	125
3	73	117
4	61	107
5	47	94
6	33	82
7	24	74
8	16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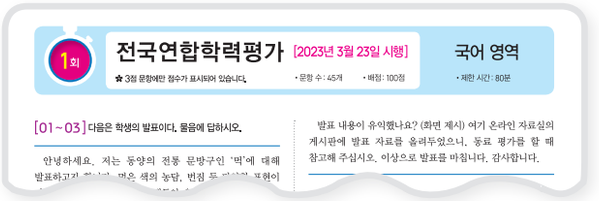
❖ 자신의 점수를 기록하고, 해당 등급에 check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전국 단위로 비교해 보세요.

❖ 등급컷 구분 원점수는 실제 점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신+수능 1등급을 위한 최고의 실전 모의고사

1 최신 3개년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 12회

최신 3개년 학력평가를 월별로 구분해서 집중 학습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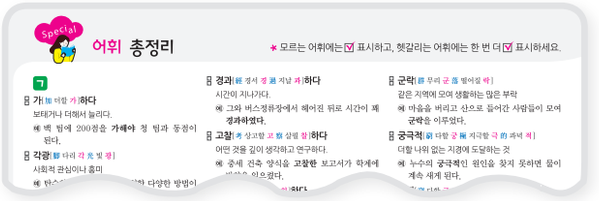
2 언어(문법) · 어휘 완성 TEST

회차별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법 개념과 어휘들을 활용하여 추가 문제를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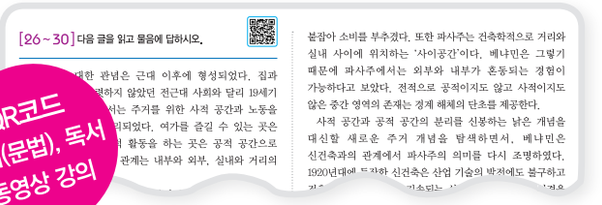
3 최신 3개년 어휘 총정리

이 책에 수록된 지문과 문제의 핵심 어휘를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어휘 총정리에서 뜻을 확인하고 익혀 두면 어휘력이 상승할 것입니다.



4 언어(문법) • 독서 문항 동영상 강의 제공

앞으로의 학력평가 · 수능의 출제 방향을 가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최신 3개년 학력평가 언어(문법) 전 문제와 독서 전 지문과 문제에 해당하는 동영상 강의를 QR 코드로 제공합니다.



QR코드
언어(문법), 독서
동영상 강의

[문학] 〈입체 첨삭 해설〉

* 시

❶ 화자, 중심 대상
시의 화자, 중심 대상에 표시했습니다.

❷ 상황, 정서, 태도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비롯해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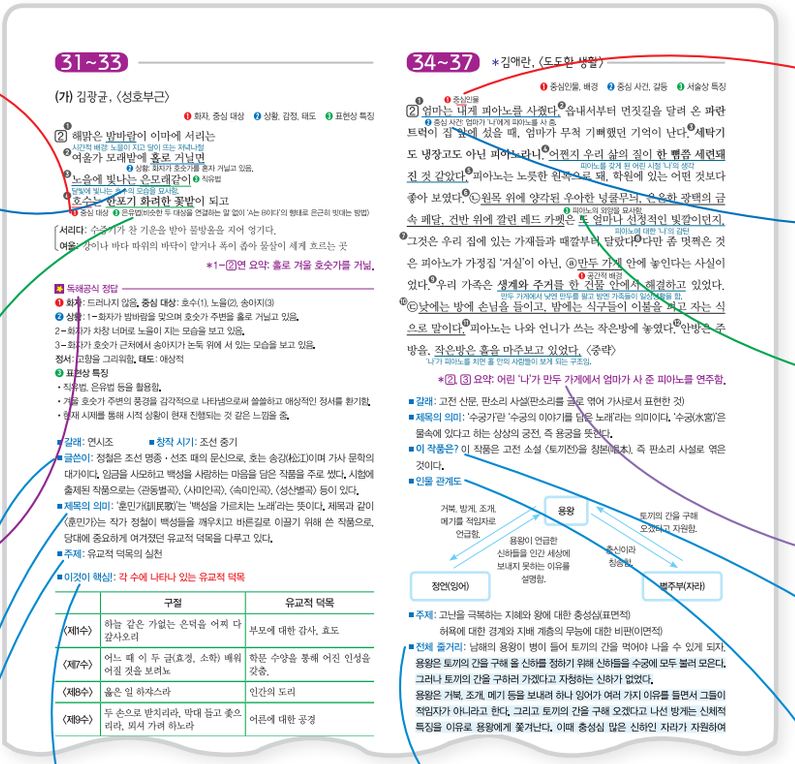
❸ 표현상 특징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독해 공식
각 갈래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확인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 글쓴이

■ 제목의 의미

■ 주제



■ 이것이 핵심!
해당 작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시했습니다.

■ 전체 줄거리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제시하여 작품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지문 수록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 소설

❶ 중심인물, 배경
소설의 중심인물과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❷ 중심 사건, 갈등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과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❸ 서술상 특징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서술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 장면 요약**

■ 이 작품은?
중요한 작품이거나 해석이 어려운 작품의 경우 해당 작품의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 인물 관계도

[독서·화법·작문·문법] 〈입체 첨삭 해설〉

글 전체 핵심어
지문 전체의 핵심어를 표시했습니다.

글 전체 중심 문장
글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문장을 알려 줍니다.

지문 어휘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휘를 쉽게 풀이했습니다.

문단 요약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적인 지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이해도
지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내용 풀이
출제 요소에 해석을 달아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의 근거도 한눈에 파악하게 했습니다.

지문 내용과 구조
지문의 내용과 주제 등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또 지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글의 제목
지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글의 제목을 제시하였습니다.

매력 오답
매력적 오답을 선택한 이유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왜 오답?
오답 풀이를 통해 틀린 문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선택지 출제 원리까지 터득할 수 있습니다.

배경지식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배경지식을 제시했습니다.

문제 유형 분석
문제 유형을 제시하여 수능형 문제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답률

선택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던 선지를 밝혀주기 위하여 선지별 선택률을 수록하였습니다.

왜 틀렸나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단서+발상
단서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를 꼭 짚어 설명합니다.
발상 핵심 단서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적용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적용해야 할 내용입니다.
해결 단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정답?
정답이 되는 이유와 다른 오답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문제 풀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16~21

(가) 국가의 통치 방법에 대한 관중의 견해

출제 ⬭ 글 전체 핵심어 ▬ 글 전체 중심 문장

① 관중은 춘추 시대 제(齊)나라의 재상으로 군주인 환공을 도와 약소국이던 제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켰다. ②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관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③ 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적극적으로 막아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하였다.
관중이 생각한 통치의 방법 / 관중이 생각한 통치의 목적

실리적: 실제로 이익이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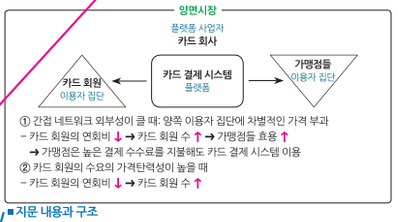
*①문단 요약: 관중이 생각한 통치 방법과 목적

④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패업(覇業)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관중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대한 관중의 견해 / # [ ]: 관중이 추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이 갖는 의의
패업(覇業): 제후들 사이에서 패자(覇者)로 인정받는 것

*④문단 요약: 국가의 통치 방법에 대한 관중의 견해와 그 의의

■ 전체 지문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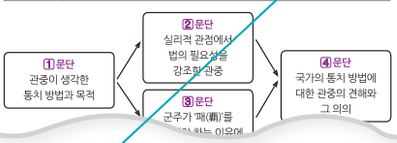
플랫폼 사용자의 가격 결정의 예



①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 때: 양쪽 이용자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 부과
– 카드 회원의 연회비 ↓ → 카드 회원 수 ↑ → 가맹점들 효용 ↑
→ 가맹점은 높은 결제 수수료를 지불해도 카드 결제 시스템 이용
② 카드 회원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 때
– 카드 회원의 연회비 ↓ → 카드 회원 수 ↑

■ 지문 내용과 구조

①문단	**관중이 생각한 통치 방법과 목적** 현실 문제의 실리적 해결 →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
②문단	**실리적 관점에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관중** – 백성: 국가 경제의 근본, 군주: 법을 만들 수 있는 천부적 자격을 지님. – 법의 목적: 백성들의 윤택한 삶 → 부강한 나라의 실현
③문단	**군주가 '패(覇)'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 군주가 '패'를 실천함 → 백성들이 군주의 권세를 인정하게 됨. → 군주가 국가를 다스릴 수 있음.
④문단	**국가의 통치 방법에 대한 관중의 견해와 그 의의** – 군주는 패업을 위한 통치(=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를 펼쳐야 함. – 의의: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자 법을 위한 통치를 도모함.



---

26 정답 ① ＊내용 파악 + 추론하기 ····· [정답률 45%]

[① 45% ② 11% ③ 16% ④ 17% ⑤ 9%]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테이프', ㉡ '헤드', ㉢ '상태 기록기'

왜 틀렸나?
㉠~㉢의 특징과 역할을 윗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 ㉠~㉢이 제시된 2문단의 내용과 함께 튜링 기계의 작동 규칙과 작동 사례를 설명한 3, 4문단의 내용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단서+발상
단서 율곡은 치세를 만드는 군주와 난세를 만드는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누어 설명했다.
발상 • 왕도: 군주의 인격 완성 →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어 냄.
• 패도: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음. →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어 내지 못함.
• 왕도와 패도는 태평한 시대인 치세를 만드는 통치 방법이다.
해결 율곡은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군주의 통치 방법이 왕도와 패도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왜 정답?
④ 율곡은 ㉡와 달리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았군.**
왕도와 패도가 구분됨.

(나) 2문단 ❹문장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 내는 것이고,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이루어 내는 것이다.

율곡은 군주의 유형을 크게 치세를 만드는 군주와 난세를 만드는 군주로 나누었고, 그 중 치세를 만드는 군주의 통치 방법을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왕도'와 '패도'로 구분하였다.

왜 오답?
군주만이 권한을 가져야 함.
② 관중과 ㉮는 모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군.**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면 안 된다고 봄.

(가) 4문단 ❷문장 이때 군주는 ~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 ~
〈보기〉 ㉮ – ❷문장 그리고 법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법을 위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관중 또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인 권세가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매력 오답
선택지의 표현과 (가)의 표현이 달라 헷갈린 학생들이 많았다. (가)에서 관중은 '군주는'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이는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군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경지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길[1] 명
(1)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예 길이 울퉁불퉁해서 자전거를 타기가 힘들었다.
(2) 걷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
예 [illegible]는 과정은 수치스럽고 고단[illegible]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 국어 활용법+α

❶ 3, 6, 9, 11월별 문제 구성과 학습 전략을 파악!



- 국어 모의고사의 문제 구성을 파악해서 실제 시험에 대비하세요.
- 3, 6, 9, 11월별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학습 전략을 세워 보세요.

❷ 학력평가 시험 전에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 3, 6, 9, 11월에 치르게 될 학력평가를 대비해서 실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80분 동안 45문항 모의고사를 풀어 보세요.
- 쉬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기, 헷갈리는 문제는 표시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보기, 지문을 구조화해서 요약하며 읽기 등 자신만의 문제 접근 방법과 시간 배분 방식을 만들어 나가세요.
- 실제 시험처럼 시작 전 가벼운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지 생각하며 전략을 쌓아 가세요.

❸ QR코드로 제공하는 독서·언어(문법) 해설 강의

- 교재에 수록된 모든 독서 • 언어(문법) 문제의 해설 강의를 QR코드를 통해 제공합니다.
- 문제를 풀고 채점한 후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문제의 해설 강의로 연결됩니다.
-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 강의를 활용해서 언어(문법) • 독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❹ 언어(문법)·어휘 완성 TEST로 개념 마무리

- 문제 풀이만으로는 부족한 언어(문법) 개념 정리를 리뷰 테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므로, 모든 회차를 푼 후에 꼭 언어(문법) • 어휘 완성 TEST로 마무리하세요.

❺ 어휘 총정리



- 국어 모의고사에서 어휘 문제는 고난도 문제가 아님에도 정답률이 낮은 문제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국어도 모르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공부해야 합니다.
- 어휘 총정리에 제시된 어휘 풀이를 활용해 소홀하기 쉬운 국어 어휘 공부도 놓치지 마세요.

❻ 쉽게 이해되는 입체 첨삭 해설로 다시는 틀리지 말자!



- 정답만 맞는지, 틀렸는지 보지 말고, 틀린 문제나 찍어서 맞은 문제 등은 꼭 다시 푸세요.
- 맞힌 문제도 해설을 읽으면서 자신이 맞게 이해하고 정답을 고른 것인지 확인하세요.
- 지문 근거를 확인하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세요.
- '왜 정답'과 '왜 오답', 정답과 오답에 대한 첨삭 해설을 보며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세요.

1회

전국연합학력평가 [2023년 3월 23일 시행]

국어 영역

☆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문항 수 : 45개 • 배점 : 100점 • 제한 시간 : 80분

[01~0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의 전통 문방구인 '먹'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먹은 색의 농담, 번짐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보존성도 뛰어나 오랫동안 우리의 문화를 기록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진 1 제시)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먹으로 그려져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요? 이제부터 먹의 재료와 종류별 특성을 소개한 뒤, 먹의 제조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먹의 주재료는 무엇일까요? (화면의 QR코드를 가리키며) 각자의 스마트 기기로 설문 페이지에 접속하여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린 후 화면 전환) 제출된 답변을 살펴보니, 정답이 있네요. 여기 그을음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먹의 핵심 재료입니다. 그을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먹의 종류는 송연 먹과 유연 먹으로 나뉩니다. 송연 먹은 소나무의 송진을, 유연 먹은 기름을 태울 때 생기는 그을음으로 만듭니다. 송연 먹은 유연 먹에 비해 먹색이 진하지만 번짐의 정도는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두 먹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어려우신 것 같네요. 그럼 이를 잘 드러내는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2 제시) 여기 두 개의 선 중 색이 진하고 가장자리가 덜 번진 선이 송연 먹으로 그은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송연 먹은 글씨를 쓸 때, 유연 먹은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먹의 제조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단계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두 장의 그림을 한 화면에 제시) 왼쪽은 그을음 채취 단계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송연 먹의 그을음은 송진을 가마에서 태워 만드는 반면 유연 먹의 그을음은 기름을 등잔에서 태워 만듭니다. 오른쪽 그림은 채취한 그을음과 아교를 섞은 반죽을 건조하는 단계를 보여 줍니다. 양질의 먹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죽 후에 수분이 잘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먹을 자연 건조시킵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먹의 제조 과정에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반죽하는 모습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른 그림 제시) 이 그림은 그을음과 아교를 섞어 반죽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 기포를 빼기 위해 무려 수만 번 이상 손으로 치대야 한다고 합니다.

발표 내용이 유익했나요? (화면 제시) 여기 온라인 자료실의 게시판에 발표 자료를 올려두었으니, 동료 평가를 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0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앞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②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③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발표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④ 발표의 진행 순서를 제시하여 이어질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⑤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2

다음을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발표자가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발표 전 청중 특성 분석	발표 중 청중 반응 분석
㉠ 먹에 대해 관심이 적은 편임.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식을 선호함. ㉢ 동료 평가를 작성할 때 참고할 발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먹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먹의 제조 과정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고 있음.

① ㉠을 고려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사진 1'을 활용하고 있다.
② ㉡을 고려하여,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화면을 보여 주며 스마트 기기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③ ㉢을 고려하여, 청중의 동료 평가를 돕기 위해 자료를 게시한 곳을 화면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을 고려하여, 청중에게 설명했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진 2'를 활용하고 있다.
⑤ ㉤을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서 제시했던 그림 중 일부를 다시 보여 주고 있다.

09

〈보기〉는 [A]를 고쳐 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영된 교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올리고당은 잘 사용하면 설탕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식품이다. 올리고당 제품을 고를 때에는 용도를 고려하고 함량을 확인하여 선택하고, 요리에 활용할 때에는 적정량을 사용하여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자.

① 중의적인 표현을 수정하고, 올리고당을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게 어때?
② 중의적인 표현을 수정하고, 올리고당과 설탕을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방법을 부각하는 게 어때?
③ 단어 선택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올리고당을 선택하고 사용할 때의 유의점을 강조하는 게 어때?
④ 단어 선택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올리고당 과잉 섭취가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환기하는 게 어때?
⑤ 단어 선택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올리고당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식품을 소개하는 게 어때?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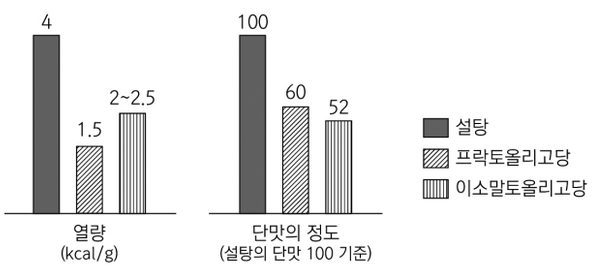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전문가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100g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과 고혈압의 발생률이 각각 1.39배, 1.66배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품을 섭취할 때는 '표시사항'의 당류 함량을 확인하여 당류를 과다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연구 자료



(다) 신문 기사

올리고당 제품을 잘 고르려면 올리고당 제품 뒷면에 쓰인 '표시사항'에서 성분명과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쓰임새에 맞는 올리고당인지 성분명을 통해 확인하고, 올리고당이 너무 적게 들어 있지 않은지 올리고당 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가): 당류의 과다 섭취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비만과 고혈압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1문단을 구체화한다.
② (나): 올리고당이 설탕보다 열량이 낮다는 내용에, 올리고당과 설탕의 열량 수치를 추가하여 2문단을 뒷받침한다.
③ (다): 용도에 맞는 올리고당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시 사항' 중 성분명을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3문단을 보강한다.
④ (가), (다): 올리고당 제품에 당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에, '표시사항'을 통해 당류의 함량과 올리고당의 함량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4문단을 보강한다.
⑤ (나), (다): 기존의 단맛을 기대하면 올리고당을 많이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덜 달게 먹는 식습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4문단을 보강한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이다. 단어의 끝에 오는 어말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더불어 단어를 이루므로 활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용언의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오는 선어말 어미는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오는 경우도 있으며 ㉢두 개 이상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선어말 어미는 시제와 높임 등의 문법적 의미를 드러낸다. '선생님은 벌써 댁으로 떠나셨겠다.'의 '떠나셨겠다'에는 '-시-', '-었-', '-겠-'과 같은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시-'는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겠-'은 추측의 의미를 드러낸다. '떠나겠셨다'와 같은 표현이 어색한 데에서 알 수 있듯, 선어말 어미가 연속해서 나타날 때에는 일정한 결합 순서가 있다. 선어말 어미가 연속해서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주체 높임, 시제, 추측이나 회상의 순으로 배열된다.

한편, 어말 어미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모두 선어말 어미인 것은 아니다. 가령 '문이 바람에 닫혔다.'에서 '-히-'와 '-었-'은 모두 어말 어미 '-다' 앞에 오지만, '-었-'은 선어말 어미인 반면 '-히-'는 접사이다. 접사는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선어말 어미와 다르다.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닫았다'는 '닫다'의 과거형이지만, 접사가 결합한 '닫히다'는 '닫다'의 피동사로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닫다'가 '닫히다'가 되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아도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사전에도 '닫다'와 '닫히다'는 표제어로 올라 있으나 '닫았다'는 그렇지 않다. 또한 선어말 어미에 비하여 접사는 결합할 때 제약이 심하다. 가령 '(구멍을) 뚫다', '(종이를) 찢다'와 같은 용언에 '-었-'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반면 '-히-'는 결합할 수 없다.

11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에서 '끝난', '아니다'를 모두 ㉠의 예로 들 수 있군.
②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께 편지를 드렸다.'에서 '계시는', '드렸다'를 모두 ㉡의 예로 들 수 있군.
③ '그녀는 학교 가는 길을 잘 알았다.'에서 '가는'을 ㉠의 예로, '알았다'를 ㉡의 예로 들 수 있군.
④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겠군.'에서 '지나고'를 ㉠의 예로, '왔겠군'을 ㉢의 예로 들 수 있군.
⑤ '그분께서 이 글을 쓰셨을 수도 있겠다.'에서 '있겠다'를 ㉡의 예로, '쓰셨을'을 ㉢의 예로 들 수 있군.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그는 쪽지를 ⓐ 구겼지만 버리지는 못했다.
- 그 물건은 어제부터 책상에 ⓑ 놓여 있었다.
- 우리 가족은 할머니 댁에서 김치를 ⓒ 담갔다.

① ⓐ: 접사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여 추측의 의미를 드러낸다.
③ ⓑ: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④ ⓑ: 접사가 결합하여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졌다.
⑤ ⓒ: 접사가 결합하여 사전에 오를 수 있는 단어가 형성되었다.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예쁜 아이가 활짝 웃는다.
㉡ 나는 어제 새 가방을 샀다.
㉢ 지금 이곳은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답다.
㉣ 작년에는 날씨가 추웠으나 올해에는 따뜻하다.
㉤ 설령 눈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밖에 나간다.

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②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이다.
③ ㉢에는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안긴문장이 있다.
④ ㉣은 두 개의 홑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⑤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14

다음은 수업 상황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선생님, '회상하건대'를 줄이면 '회상컨대'와 '회상건대' 중 어떻게 적는 게 맞나요?
선생님: 그럴 때는 한글 맞춤법 규정을 살펴봐야 해요.

>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붙임]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하'가 줄어드는 기준은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인데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경우에는 'ㅎ'이 남아요. 그래서 '회상하건대'는 '하'의 'ㅏ'가 줄고 'ㅎ'이 'ㄱ'과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어 '회상컨대'로 적어야 해요.

학생: 네, 감사해요. 한글 맞춤법에도 준말 규정이 있었네요.
선생님: 그럼 다음 자료를 규정에 맞게 준말로 바꿔 볼까요?

깨끗하지 않다	연구하도록	간편하게
생각하다 못해	답답하지 않다	

학생: [㉠]
선생님: 네, 잘했어요.

❖ 정답 및 해설 241~244p

1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높임 표현은 높임 대상에 따라 주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 높임 표현은 크게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에 의해 실현된다. 문법적 수단은 조사나 어미를, 어휘적 수단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기 2〉

[대화 상황]

손님 : ㉠어머니께 선물로 드릴 신발을 찾는데,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점원 :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는 손님들께서 이 제품을 많이 사 가셔요. ㉣할인 중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손님 : 좋네요. ㉤저도 어머니를 뵙고, 함께 와야겠어요.

① ㉠: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을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② ㉡: 선어말 어미 '-으시-'와 조사 '요'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③ ㉢: 동사 '모시다'와 조사 '께서'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④ ㉣: 문법적 수단을 통해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
⑤ ㉤: 어휘적 수단을 통해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포핵 속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mRNA로 전사되어 세포질로 내보내진 후 리보솜을 통해 단백질로 합성된다.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기생체로, 생물체에 침입하여 자신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꾼 뒤 숙주 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한다. 이에 대항해 생물체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거나 기억 세포를 생성해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한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 낸 물질인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바이러스 감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 mRNA를 접종하는 것으로, 주입된 mRNA를 통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mRNA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으며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 반면 이처럼 체내에서 불안정할 뿐 아니라 분자의 크기가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다.

지질 분자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소수성을 갖는다. 물은 분자 내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즉 친수성 물질과만 섞이고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과만 섞이기 때문이다. 한편 ㉠ 생물체의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되는데,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와 음전하를 띤 ⓑ 인산기 머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인지질은 친수성 용매나 소수성 용매 모두와 섞이는 양친매성 물질이다. 이에 따라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세포 외부나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고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 서로 몰려 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된다. 세포막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차단된다.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면 mRNA와 세포막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음전하를 띤 mRNA가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이면 음전하를 띤 세포막의 인산기 머리와 서로 반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이온성 지질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mRNA를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체내에서는 양이온성 지질에 ⓒ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어 mRNA의 세포막 투과가 제한된다.

따라서 용액의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의 재료로 사용한다. pH가 낮은 용액에서는 수소 이온 농도가 높으므로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화된다. 반면 pH가 높은 용액에서는 수소 이온을 적게 받아들여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 즉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킨 뒤 pH를 높이면 중성의 'mRNA－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들 수 있고, 이 복합체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내포 작용에 의해 세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내포 작용이란 일종의 생화학적 싱크홀 현상으로,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함입되는 현상이다. 내포 작용이 일어나면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된다.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는 산성화되는데, 이에 따라 ㉡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솜 막이 불안정해져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된다. 그리고 방출된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하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고 기억세포를 생성함으로써 인체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 pH: 수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성 수용액의 pH는 7이며, 산성 용액에서는 7보다 낮다.

16

mRNA 백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바이러스 대신 인체 내에서 합성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체로 이용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②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전 물질을 통한 세포의 단백질 합성 과정이 수반된다.
③ 기억 세포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유전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
④ 세포핵 안에서 유전 정보가 전사되는 과정을 조절하여 리보솜의 단백질 합성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⑤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접종하는 경우와 달리 유전 정보가 제거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백신으로 주입한다.

17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산기가 세포 바깥쪽에, 지방산이 세포질에 접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② 수용체를 통해 특정의 세포 외부 물질을 세포 내부로 진입시킬 수 있다.
③ 내포 작용이 발생하면 일부가 세포질로 함입되어 엔도솜 구조체를 형성한다.
④ 친수성 물질 및 소수성 물질 모두와 섞일 수 있는 양친매성의 인지질로 이루어진다.
⑤ 인지질의 소수성 꼬리로 인해 세포 내외의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을 제한한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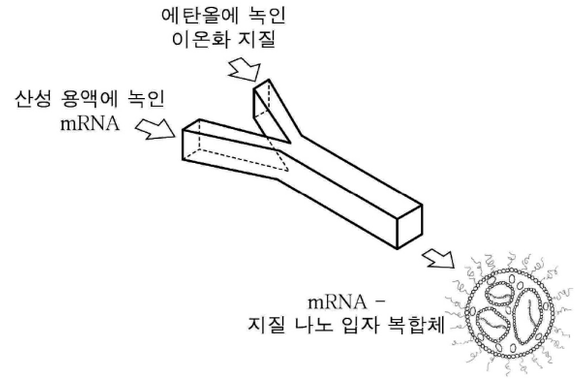
① ⓓ는 ⓐ가 체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인공 외막으로 기능한다.
② ⓐ와 ⓑ는 모두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둘 사이에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③ ⓐ가 리보솜에 전달되려면 세포 밖에서 ⓓ와 결합한 후 세포 안에서 ⓓ와 분리되어야 한다.
④ ⓒ는 음전하를 띠는 반면 ⓓ는 주변에 분포하는 수소 이온의 양에 따라 이온화의 정도가 변화한다.
⑤ ⓐ와 결합하면서 ⓓ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가 흡착되는 현상이 억제된다.

19

〈보기〉는 'mRNA－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산성 용액에 녹인 mRNA와 에탄올에 녹인 이온화 지질을 Y자 형태의 미세관에 일정한 속도로 흘려보낸다. 이렇게 혼합된 용액을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투석 처리하여 pH를 높인다. 그리고 에탄올을 제거하여 균일한 상태의 mRNA－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얻어낸다.
(단, 이때 에탄올의 pH는 7임.)



① 이온화 지질이 에탄올에 녹을 수 있는 것은 에탄올이 지질과 섞일 수 있는 소수성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이겠군.
② mRNA와 이온화 지질이 녹은 각 용액의 투입 속도를 조절해 투입량을 조절하면 mRNA－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의 균일도가 유지되겠군.
③ mRNA가 녹은 산성 용액과 이온화 지질이 녹은 에탄올이 혼합되면 이온화 지질이 양전하를 띠면서 이온화 지질과 mRNA가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겠군.
④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산성 용액을 투석 처리하면 수소 이온의 농도가 낮아져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군.
⑤ pH가 높아지면 이온화 지질의 소수성이 약해져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이 감소하므로 더욱 미세한 크기의 mRNA－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가 형성되겠군.

❖ 정답 및 해설 12~16p

29

다음은 윗글을 읽고 〈그림〉에 대해 경제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동아리 회장: 오늘 살펴본 경제 자료 속 그래프에 대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보자.
부원 1: 나는 H가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I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해.
부원 2: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차선으로 선택되었다면 그 이유는 사회후생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부원 3: I의 위치를 고려하면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해.
부원 4: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가능곡선을 고려하면 K도 H와 마찬가지로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부원 5: SIC_3은 SIC_1과 SIC_2보다 사회후생수준이 높다고 생각해.

① 부원 1의 생각　② 부원 2의 생각
③ 부원 3의 생각　④ 부원 4의 생각
⑤ 부원 5의 생각

3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균형이 맞게 바로 잡음.
② ⓑ: 생각하고 헤아려 봄.
③ ⓒ: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④ ⓓ: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
⑤ ⓔ: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됨.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죽창(竹窓)의 **병(病)이 깁고** 포금(布衾)이 냉낙(冷落)ᄒᆞᆫ대*
돌미나리 ᄒᆞᆫ줌으로 석찬(夕饌)을 ᄒᆞ쟈터니
상 위에 그저 노코 님 ᄉᆡᆼ각 ᄒᆞᄂᆞᆫ ᄯᅳᆺ은
아리짜온 **님의 거동(擧動) 친(親) ᄒᆞᆫ적 업건마ᄂᆞᆫ**
불관(不關)ᄒᆞᆫ* **이 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오니**
월노(月老)의 노(繩)*흘 ᄆᆡᆫ가 연분(緣分)도 하 중(重)ᄒᆞ고
조믈(造物)이 새오던가 박명(薄命)*ᄒᆞᆷ도 그지업다
(중략)
이팔(二八) 방년(芳年)이 손ᄭᅳᆺ아 다ᄃᆞ르니
십니(十里) 벽도화(碧桃花)의 구름이 머흔 속의
내 소식 님 모르고 ㉠ <u>님의 집</u> 나 모를 제
세ᄉᆞ(世事)의 마(魔)히 고하* 홍안(紅顔)이 복(福)이 업셔
하ᄅᆞ밤 놀난 우레 풍우(風雨)조차 섯거치니
ᄠᅳᆯ알픠 심근 규화(葵花) 못피여 시들거다
ᄒᆞᆫ 고기 흐린 물이 왼 못을 더러인다
형극(荊棘)의 ᄯᅥ딘 불이 난혜총(蘭蕙叢)의 붓터오니*
내 얼골 고은 줄을 님이 엇디 알으시고
화공(畵工)의 붓긋흐로 그려 내여 울닐 손가
연년(延年)의 가곡(歌曲)으로 ᄯᅴ여다가 도도올가
대가티 고든 졀(節)은 님이 더욱 모르려든

– 이긍익, 〈죽창곡(竹牕曲)〉

* **포금이 냉낙ᄒᆞᆫ대**: 이부자리가 차가운데　* **불관ᄒᆞᆫ**: 관계없는
* **월노의 노**: 남녀의 인연을 맺어 주는 끈
* **박명**: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움.
* **세ᄉᆞ의 마히 고하**: 세상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생겨
* **형극의 ᄯᅥ딘 불이 난혜총의 붓터오니**: 가시덤불에 떨어진 불이 난초와 혜초 무더기에 붙으니

(나) 숭정(崇禎) 9년 4월에, 주인이 노비 운(雲)을 시켜 마구간 바닥에 매어 엎드려 있는 말을 끌어 내오게 하고, 말에게 이르기를,

"안타깝구나, 말아. 너의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힘도 쇠하여졌구나. 장차 너를 빨리 달리게 한즉 네가 달릴 수 없음을 알며, 장차 너를 뛰게 한즉 네가 그럴 수 없음을 안다. 내가 너에게 수레를 매어 매우 멀고 험한 길을 넘게 한즉 너는 넘어질 것이며,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싣고 풀이 우거진 먼 길을 건너게 하면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말이여, 장차 너를 어디에 쓰겠느냐? 너를 백정에게 주어 뼈와 살을 바르게 할까? 나는 너에게 차마 그럴 수는 없다. 장차 너를 성 안의 저자거리에 가서 팔더라도 사람들이 너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안타깝다 말아. 나는 이제 너의 재갈을 벗기고 굴레를 풀어 놓아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가거라. 나는 너에게서 취하여 쓸 것이 없구나."

라고 하니, 말은 이에 귀를 쫑그리고 듣는 것처럼 하고, 머리를 쳐들고 하소연하는 듯하며 몸을 웅크리고 오랫동안 있으나 입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을 추측컨대,

"슬프구나, 주인의 말씀이 이처럼 정성스러울까. 그러나 주인 역시 어진 사람은 아니다. 옛날 나의 나이가 아직 어려 힘이 왕성할 때, 하루에 백 리를 달렸으나 가는 것에 힘이 없지 아니하였고, 한 번 짐을 실음에 몇 석을 실었으나 나의 힘이 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주인은 가난하였는데, 생각하건대 내가 아는 바로는, 쑥으로 사방의 벽을 쳤고, 쓸쓸하게 텅 빈집에는 동이에 한 말의 조를 쌓아둠이 없었고, 광주리에는 한 자의 피륙도 저장함이 없었다.

마누라는 야위어 굶주림에 울고 여러 아이들은 밥을 찾으나, 아침에는 된 죽 저녁에는 묽은 죽을 구걸하듯 빌어서 끼니를 이어갔다. 그 당시에 나는 진실로 힘을 다하여 동서로 오가고, 오직 주인의 목숨만을 생각하며 남북으로 오갔으니, 오직 주인의 목숨을 위해 멀리는 몇 천리 가까이는 몇 십 몇 백리를 짐을 싣고 달리며 짐을 싣고 뛰며 옮기기에 일찍이 감히 하루라도 편히 살지 못했으니, 나의 수고로움은 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집의 여러 식구의 목숨이 나로 인해 완전할 수 있었으며, 나로 말미암아 길 위에서 굶어 죽은 시체로 도랑에 빠지지 않게 되지 않았는가. (중략)

슬프다. 내가 비록 늙었으나 오히려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주인이 나를 길러 줄 뜻을 더해 길러줌에 마음을 쓴다면, 경치 좋은 곳에서 나이나 세면서 한가로이 세월을 보내는 것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동쪽 교외의 무성한 풀이 내 배고픔을 달래기에 충분하며, 단 샘물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남쪽 산골짜기의 맑은 물이면 나의 목마름을 풀기에 충분합니다. 쌓인 피로를 쉬고 고달픔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으며, 흔들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고 피곤함에서 소생할 수 있게 하며, 힘을 헤아려 짐을 맡기고, 재주를 헤아려 일을 시키면 비록 늙더라도 오히려 능히 빠르게 떨치면서 길게 울어 주인을 위해 채찍질을 당하면서 쓰임에 대비하고 남은 목숨을 마치는 것이 나의 큰 행복입니다. 버림받는 것으로 마칠 뿐이라면 나는 곧 발굽으로 눈서리를 밟고 털로는 찬바람을 막으며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애오라지 스스로 기르며 나의 천명을 완전히 한다면 도리어 나의 참된 천성에 거슬리는 것이니, 나에게 어찌 아픔이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이에 실의(失意)하여 탄식하며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잘못이로다. 말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옛날에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관자(管子)가 늙은 말을 풀어놓고 따라가기를 청했으니, 관자만이 오직 늙은 말을 버리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능히 그 임금을 도와 천하를 제패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늙은 말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어 노비 운(雲)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잘 먹이고 다만 너의 손에 욕 당함이 없도록 하라."

라고 했다.

– 홍우원, 〈노마설(老馬說)〉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② 명암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심리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2022.11
10회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에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유배 생활을 하는 작가의 상황이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화자는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임이나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① '병이 깁고'와 '돌미나리 ᄒᆞᆫ줌으로 석찬을 ᄒᆞ쟈터니'를 통해 부정적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겠군.
② '님의 거동 친 ᄒᆞᆫ적 업건마ᄂᆞᆫ'과 '이 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오니'를 통해 화자가 타인의 잘못으로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됐음을 알 수 있겠군.
③ '조믈이 새오던가'와 '세ᄉᆞ의 마히 고하'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④ '뜰알픠 심근 규화 못피여 시들거다'를 통해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겠군.
⑤ '대가티 고든 졀은 님이 더욱 모르려든'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알 수 있겠군.

❖ 정답 및 해설 371 ~ 375p

7회 문법 · 어휘 완성 TEST

• 문항 수 : 4개 • 제한 시간 : 5분

01 _ 11~12번 연계

〈보기〉의 [학습 과제]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습 자료]

선어말 어미는 ⓐ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 하나가 오는 경우도 있으며 ⓒ 두 개 이상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선어말 어미는 시제와 높임, 추측 등의 문법적 의미를 드러낸다.

[학습 과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 중 무엇의 예에 해당하는지 고르고, 선어말 어미의 문법적 의미에 대해 탐구해보자.

어머니께서는 내일에나 도착하시겠다.

① ⓐ의 예로 들 수 있으며,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의 예로 들 수 있으며,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③ ⓑ의 예로 들 수 있으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④ ⓒ의 예로 들 수 있으며, 주체 높임의 의미를 드러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⑤ ⓒ의 예로 들 수 있으며, 객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02 _ 13번 연계 문제

〈보기〉의 [A]가 나타난 예시로 적절한 것은?

〈보기〉

겹문장은 둘 이상의 홑문장이 나란히 연결된 문장과 [A] 하나의 홑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으로 나뉜다.

① 벌써 해가 중천에 떴다.
② 공원에 예쁜 꽃이 많이도 피었다.
③ 비가 오더라도 내가 마중을 나가겠다.
④ 하늘의 별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다.
⑤ 어제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별로 좋지 않다.

03 _ 14번 연계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ㄱ~ㅁ을 준말로 바꾼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 규정 제40항에 따르면,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다만,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이때 '하'가 줄어드는 기준은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인데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경우에는 'ㅎ'이 남는다.

ㄱ. 발견하도록
ㄴ. 섭섭하다 못해
ㄷ. 도달하기에
ㄹ. 거북하지 않게
ㅁ. 의젓하지 못하여

① ㄱ은 '발견토록'으로 써야 한다.
② ㄴ은 '섭섭다 못해'로 써야 한다.
③ ㄷ은 '도달키에'로 써야 한다.
④ ㄹ은 '거북지 않게'로 써야 한다.
⑤ ㅁ은 '의젓치 못하여'로 써야 한다.

04 _ 35~38번 연계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다산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보편성이 있으므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② 돈이 부족하여 혼사를 봄으로 미루게 되었다.
③ 자기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은 나쁜 버릇이다.
④ 숙제를 이토록 미룬 것을 보니 너 정말 게으르구나.
⑤ 그의 표정으로 미루어 보니 그가 제안을 거절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 정답 및 해설 269~270p

Special

어휘 총정리

✱ 모르는 어휘에는 ☑ 표시하고, 헷갈리는 어휘에는 한 번 더 ☑ 표시하세요.

ㄱ

가[加 더할 가]**하다**
보태거나 더해서 늘리다.
예 백 팀에 200점을 **가해야** 청 팀과 동점이 된다.

각광[脚 다리 각 光 빛 광]
사회적 관심이나 흥미
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각별[各 각각 각 別 다를 별]**하다**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따위가 유달리 특별하다.
예 이 물건은 옮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간과[看 볼 간 過 지날 과]**하다**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예 하천 정비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이번 장마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간략[簡 대쪽 간 略 다스릴 략]**하다**
간단하고 짤막하다.
예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간략하게** 근황을 나누었다.

간주[看 볼 간 做 지을 주]**하다**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예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의 의견을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감내[堪 견딜 감 耐 견딜 내]**하다**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내다.
예 추위를 **감내하며** 새벽부터 산에 올라 본 일출은 장관이었다.

개선[改 고칠 개 善 착할 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
예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개조[改 고칠 개 造 지을 조]**하다**
고쳐 만들거나 바꾸다.
예 베란다를 **개조하여** 방으로 꾸몄다.

견고[堅 굳을 견 固 굳을 고]**하다**
굳고 단단하다.
예 집을 보호할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었다.

경감[輕 가벼울 경 減 덜 감]**하다**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덜어서 가볍게 하다.
예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진통제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경계[警 경계할 경 戒 경계할 계]**하다**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다.
예 아버지는 평생 게으른 삶을 **경계하며** 살아오셨다.

경과[經 경서 경 過 지날 과]**하다**
시간이 지나가다.
예 그와 버스정류장에서 헤어진 뒤로 시간이 꽤 **경과하였다.**

고찰[考 상고할 고 察 살필 찰]**하다**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다.
예 중세 건축 양식을 **고찰한** 보고서가 학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공허[空 빌 공 虛 빌 허]**하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다.
예 가족이 없는 집에 들어오자 **공허하다.**

골몰[汨 다스릴 골 沒 잠길 몰]**하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히다.
예 내가 최근에 가장 **골몰한** 것은 내 장래 희망에 대한 것이다.

공감각적 심상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일어나는 심상

>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후각화)
> – 한용운, 〈님의 침묵〉

관조[觀 볼 관 照 비출 조]**하다**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다.
예 높은 산에 올라 세상을 **관조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았다.

관여[關 빗장 관 與 더불 여]**하다**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
예 이번 행사에 **관여한** 사람만 백 명 정도로, 최근에 열린 것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교착[膠 갖풀 교 着 붙을 착]
어떤 상태가 굳어 조금도 변동이나 진전이 없이 머묾.
예 서로 대립된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구체화[具 갖출 구 體 몸 체 化 될 화]**하다**
구체적인 것으로 되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예 보고서 완료 일정을 **구체화했다.**

구축[構 얽을 구 築 쌓을 축]**하다**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가 닦아져 세워지다.
예 수도, 전기 등 제반 시설을 **구축하지** 않은 곳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구현[具 갖출 구 現 나타날 현]**하다**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다.
예 그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썼다. 곳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한[局 판 국 限 한계 한]**하다**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하다.
예 구매 후보지를 같은 지역 내의 업체로 **국한하지** 않기로 하였다.

군락[群 무리 군 落 떨어질 락]
같은 지역에 모여 생활하는 많은 부락
예 마을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모여 **군락**을 이루었다.

궁극적[窮 다할 궁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것
예 누수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물이 계속 새게 된다.

궁핍[窮 다할 궁 乏 가난할 핍]**하다**
몹시 가난하다.
예 **궁핍하기** 짝이 없었던 살림은 봄이 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규합[糾 꼴 규 合 합할 합]**하다**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으다.
예 방과 후 떡볶이를 먹으러 갈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기반[基 터 기 盤 소반 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예 입사 후 몇 달은 회사 생활의 **기반**을 닦는데 쓰였다.

기여[寄 부칠 기 與 더불 여]**하다**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
예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여금이 지급되었다.

기원[起 일어날 기 源 근원 원]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 또는 그런 근원
예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재[記 기록할 기 載 실을 재]**되다**
문서 따위에 기록되어 오르다.
예 그의 논문에는 내가 공동 저자로 **기재되어** 있다.

기지[機 틀 기 智 지혜 지]
경우에 따라 재치 있게 대응하는 지혜
예 위기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상황을 타개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재미를 준다.

기피[忌 꺼릴 기 避 피할 피]**하다**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하다.
예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매립장이 생긴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긴밀[緊 팽팽할 긴 密 빽빽할 밀]**하다**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다.
예 단짝 친구와 나의 사이는 친자매처럼 **긴밀하다.**

ㄴ

내재[內 안 내 在 있을 재]**하다**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다.
예 이번 그림은 나에게 **내재한** 예술성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독서·화법·작문·문법] 〈입체 첨삭 해설〉

글 전체 핵심어
지문 전체의 핵심어를 표시했습니다.

글 전체 중심 문장
글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문장을 알려 줍니다.

지문 어휘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휘를 쉽게 풀이했습니다.

문단 요약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적인 지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이해도
지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내용 풀이
출제 요소에 해석을 달아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의 근거도 한눈에 파악하게 했습니다.

지문 내용과 구조
지문의 내용과 주제 등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또 지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글의 제목
지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글의 제목을 제시하였습니다.

매력 오답
매력적 오답을 선택한 이유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문제 유형 분석
문제 유형을 제시하여 수능형 문제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답률

선택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던 선지를 밝혀주기 위하여 선지별 선택률을 수록하였습니다.

왜 틀렸나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단서+발상
단서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를 꼭 짚어 설명합니다.
발상 핵심 단서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적용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적용해야 할 내용입니다.
해결 단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정답?
정답이 되는 이유와 다른 오답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문제 풀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왜 오답?
오답 풀이를 통해 틀린 문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선택지 출제 원리까지 터득할 수 있습니다.

배경지식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배경지식을 제시했습니다.

16~21

(가) 국가의 통치 방법에 대한 관중의 견해

출제 ⬭ 글 전체 핵심어 ▭ 글 전체 중심 문장

①관중은 춘추 시대 제(齊)나라의 재상으로 군주인 환공을 도와 약소국이던 제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켰다. ②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관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③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적극적으로 막아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하였다.
(관중이 생각한 통치의 방법 / 관중이 생각한 통치의 목적)

〔실리적: 실제로 이익이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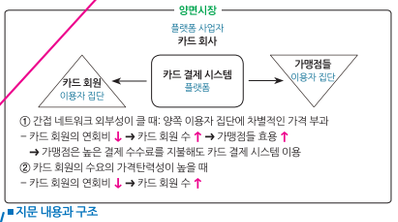
*①문단 요약 : 관중이 생각한 통치 방법과 목적

④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패업(覇業)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패업(覇業): 패업(覇業)을 위한 통치의 개념 / # [ ]: 군주의 통치술에 대한 관중의 견해 / # [ ]: 관중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이 갖는 의의)

*④문단 요약 : 국가의 통치 방법에 대한 관중의 견해와 그 의의

■ 전체 지문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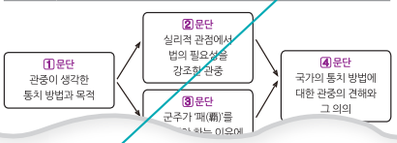
플랫폼 사용자의 가격 결정의 예



①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 때: 양쪽 이용자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 부과
– 카드 회원의 연회비 ↓ → 카드 회원 수 ↑ → 가맹점들 효용 ↑
→ 가맹점은 높은 결제 수수료를 지불해도 카드 결제 시스템 이용
② 카드 회원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 때
– 카드 회원의 연회비 ↓ → 카드 회원 수 ↑

■ 지문 내용과 구조

①문단	**관중이 생각한 통치 방법과 목적** 현실 문제의 실리적 해결 →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
②문단	**실리적 관점에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관중** – 백성: 국가 경제의 근본, 군주: 법을 만들 수 있는 천부적 자격을 지님. – 법의 목적: 백성들의 윤택한 삶 → 부강한 나라의 실현
③문단	**군주가 '패(覇)'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 군주가 '패'를 실천함 → 백성들이 군주의 권세를 인정하게 됨. → 군주가 국가를 다스릴 수 있음.
④문단	**국가의 통치 방법에 대한 관중의 견해와 그 의의** – 군주는 패업을 위한 통치(=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를 펼쳐야 함. – 의의: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자 법을 위한 통치를 도모함.



---

26 정답 ① ＊내용 파악 + 추론하기 ····· [정답률 45%]
[① 45% ② 11% ③16% ④ 17% ⑤ 9%]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테이프', ㉡ '헤드', ㉢ '상태 기록기'

왜 틀렸나?
㉠~㉢의 특징과 역할을 윗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 ㉠~㉢이 제시된 2문단의 내용과 함께 튜링 기계의 작동 규칙과 작동 사례를 설명한 3, 4문단의 내용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단서+발상

단서 율곡은 치세를 만드는 군주와 난세를 만드는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누어 설명했다.

발상 • 왕도: 군주의 인격 완성 →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어 냄.
• 패도: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음. →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어 내지 못함.
• 왕도와 패도는 태평한 시대인 치세를 만드는 통치 방법이다.

해결 율곡은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군주의 통치 방법이 왕도와 패도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왜 정답?
④ **율곡은 ㉡와 달리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치세와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았군.**
(왕도와 '패도'가 구분됨.)

(나) 2문단 ❹문장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 내는 것이고,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이루어 내는 것이다.

율곡은 군주의 유형을 크게 치세를 만드는 군주와 난세를 만드는 군주로 나누었고, 그 중 치세를 만드는 군주의 통치 방법을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왕도'와 '패도'로 구분하였다.

왜 오답?
② **관중과 ㉡는 모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군.**
(군주만이 권한을 가져야 함. /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면 안 된다고 봄.)

(가) 4문단 ❷문장 이때 군주는 ~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 ~
〈보기〉 ㉡ ~ ❷문장 그리고 법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법을 위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관중 또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인 권세가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매력 오답 선택지의 표현과 (가)의 표현이 달라 헷갈린 학생들이 많았다. (가)에서 관중은 '군주는'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이는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군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경지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길[1] 명
(1)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예 길이 울퉁불퉁해서 자전거를 타기가 힘들었다.
(2) 걷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
예 [illegible]는 과정은 수치스럽고 고단[illegible]

1회 전국연합학력평가 [2023년 3월 시행]

01~03

출제 중심 내용

①❶ 안녕하세요.❷ 저는 동양의 전통 문방구인 '먹'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❸ 먹은 색의 농담, 번짐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보존성도 뛰어나 오랫동안 우리의 문화를 기록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❹ (사진 1 제시)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먹으로 그려져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요? ❺[이제부터 먹의 재료와 종류별 특성을 소개한 뒤, 먹의 제조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① 요약: 동양의 전통 문방구인 '먹'을 발표 주제로 소개함.

②❶ 먹의 주재료는 무엇일까요?❷ (화면의 QR코드를 가리키며) [각자의 스마트 기기로 설문 페이지에 접속하여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❸ (잠시 기다린 후 화면 전환) 제출된 답변을 살펴보니, 정답이 있네요.❹ 여기 그을음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❺ 이것이 바로 먹의 핵심 재료입니다.❻ 그을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먹의 종류는 송연 먹과 유연 먹으로 나뉩니다.❼ 송연 먹은 소나무의 송진을, 유연 먹은 기름을 태울 때 생기는 그을음으로 만듭니다.❽ 송연 먹은 유연 먹에 비해 먹색이 진하지만 번짐의 정도는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❾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두 먹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어려우신 것 같네요.❿ 그럼 이를 잘 드러내는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⓫ (사진 2 제시) 여기 두 개의 선 중 색이 진하고 가장자리가 덜 번진 선이 송연 먹으로 그은 것입니다.⓬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송연 먹은 글씨를 쓸 때, 유연 먹은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② 요약: 송연 먹과 유연 먹의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함.

③❶ 먹의 제조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단계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❷ (두 장의 그림을 한 화면에 제시) 왼쪽은 그을음 채취 단계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❸ 송연 먹의 그을음은 송진을 가마에서 태워 만드는 반면 유연 먹의 그을음은 기름을 등잔에서 태워 만듭니다.❹ 오른쪽 그림은 채취한 그을음과 아교를 섞은 반죽을 건조하는 단계를 보여 줍니다.❺ 양질의 먹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죽 후에 수분이 잘 빠져나가야 합니다.❻ 이를 위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먹을 자연 건조시킵니다.❼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먹의 제조 과정에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네요.❽ 그렇다면 반죽하는 모습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❾ (다른 그림 제시) 이 그림은 그을음과 아교를 섞어 반죽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❿ 기포를 빼기 위해 무려 수만 번 이상 손으로 치대야 한다고 합니다.

*③ 요약: 먹의 제조 과정 소개

아교: 짐승의 가죽, 힘줄, 뼈 따위를 진하게 고아서 굳힌 끈끈한 것. 풀로도 쓰고 지혈제로도 쓴다. = 아교풀 **치대다**: 빨래, 반죽 따위를 무엇에 대고 자꾸 문지르다.

④❶ 발표 내용이 유익했나요?❷ (화면 제시) 여기 온라인 자료실의 게시판에 발표 자료를 올려두었으니, 동료 평가를 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❸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❹ 감사합니다.

*④ 요약: 동료 평가와 관련된 정보

---

01 정답 ④ *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 [정답률 85%]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답 ?

④ 발표의 진행 순서를 제시하여 이어질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먹의 재료와 종류별 특성 ➡ 먹의 제조 과정
* 근거: ① - ❺

오답 ?

① 앞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음.

②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음.

③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발표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화면의 QR코드를 가리키며)' 드러나지 않음.
* 근거: ② - ❷

⑤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드러나지 않음.

---

02 정답 ⑤ *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 [정답률 92%]

다음을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발표자가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발표 전 청중 특성 분석	발표 중 청중 반응 분석
㉠ 먹에 대해 관심이 적은 편임.	㉣ 먹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식을 선호함.	㉤ 먹의 제조 과정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고 있음.
㉢ 동료 평가를 작성할 때 참고할 발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오답 ?

⑤ ㉤을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서 제시했던 그림 중 일부를 다시 보여 주고 있다.
먹의 제조 과정에 흥미를 느낌.
새로운 그림을 보여 줌.

> ③ - ❷ (두 장의 그림을 한 화면에 제시) 왼쪽은 그을음 채취 단계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 ③ - ❼~❾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먹의 제조 과정에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네요. ~ (다른 그림 제시) 이 그림은 그을음과 아교를 섞어 반죽하는 모습 ~

먹의 제조 과정에 흥미를 느끼는 청중의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그림을 보여 주었다. 앞서 제시한 두 장의 그림 중 일부를 보여 주지는 않았다.

오답 ?

① ㉠을 고려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사진 1'을 활용하고 있다.
먹으로 그려진 작품들

② ㉡을 고려하여,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화면을 보여 주며 스마트 기기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QR코드

> ② - ❷ (화면의 QR코드를 가리키며) 각자의 스마트 기기로 설문 페이지에 접속하여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③ ㉢을 고려하여, 청중의 동료 평가를 돕기 위해 자료를 게시한 곳을 화면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온라인 자료실의 게시판

> ④ - ❷ (화면 제시) 여기 온라인 자료실의 게시판에 발표 자료를 올려두었으니, 동료 평가를 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10 정답 ① ＊조건에 따라 내용 생성하기 ····· [정답률 83%]

〈조건〉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캠페인 활동 - 학생들이 칼슘 섭취의 중요성과 칼슘 결핍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함.

〈 조건 〉
- ○ 글의 흐름을 고려할 것 – 조건 1
  가치 소비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내용
- ○ 설의법과 비유법을 모두 사용할 것
  조건 2 조건 3

왜 정답?

①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듯이 내가 실천한 올바른 가치 소비가 사회의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건 1 (○), 조건 3 (○) / 조건 2 (○)

비유법을 통해 개인의 가치 소비를 시냇물에, 사회적 영향력을 강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글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의문형의 어미를 통해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왜 오답?

② 당신의 소비가 나를 위한 사치인지 남을 위한 가치인지 생각하며 현명하게 소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 조건 1 (×), 조건 3 (×)
조건 2 (○)

③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소비자들의 착한 가치 소비가 계속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조건 2 (×)
조건 3 (○) / 조건 1 (○)

비유법을 통해 개인의 가치 소비를 물방울에, 사회적 영향력을 바위를 뚫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내가 소비한 물건을 마음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 조건 2 (×)
조건 3 (○) / 조건 2 (○)

⑤ 나의 소비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바람직한 가치 소비를 하자. – 조건 2 (×)
조건 1 (○), 조건 3 (○)

11~12 ＊관형어의 실현

출제

①❶ 품사'는 공통된 성질이 있는 단어끼리 묶어서 분류해 놓은 갈래를 뜻하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를 뜻한다.❷ 관형사'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해당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이고,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므로, 서로 문법 단위가 다르다.❸ 그런데 관형사나 관형어는 이름과 그 기능이 서로 유사하여,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①문단 요약: 관형사와 관형어 구별의 어려움

②❶ 관형사'는 단어의 성질 자체가 체언의 수식에 있고,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❷ 하지만 '관형어'는 관형사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❸ 관형사 이외에도 체언과 관형격 조사의 결합,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체언 자체로도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함. / 관형사는 문장 성분이 항상 관형어임. / 관형어의 실현 ① '관형사' / 실현 ② '체언 + 관형격 조사' / 실현 ③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 실현 ④ '체언'

(가) 헌 집이지만 나는 고향 집이 정겹다.
관형사 / 체언

(나) 할아버지의 집을 고쳐서 예쁜 집으로 만들었다.
체언 + 관형격 조사 /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②문단 요약: 관형어의 실현 방법

③❶ (가)의 '헌'은 '집'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❷ 이때 '헌'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헌'이라는 고정된 형태로만 쓰인다.❸ 즉 '헌 책, 헌 구두'와 같이 관형사는 언제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만 쓰인다.❹ 또한 '고향'은 명사이지만, 뒤에 오는 체언 '집'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❺ 이처럼 체언이 나란히 올 경우 앞의 체언은 뒤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관형어의 실현 ① '관형사' / '관형사'의 특징 ① / 특징 ② / 체언을 수식함. / 관형어의 실현 ④ '체언' / 체언이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 체언을 수식함.

＊③문단 요약: 관형어의 실현 ① '관형사', ④ '체언'

④❶ (나)의 '할아버지'는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여 '집'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다.❷ 또한 '예쁜'은 형용사인데,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집'을 꾸미는 관형어로 쓰인다.❸ 마찬가지로 '살던 집', '구경하는 집'처럼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관형어의 실현 ② '체언 + 관형격 조사' / 체언을 수식함. / 관형어의 실현 ③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 체언을 수식함. / 살– + –던 / 구경하– + –는

＊④문단 요약: 관형어의 실현 ② '체언 + 관형격 조사', ③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 이것이 핵심!

①문단	[관형사와 관형어 구별] ① 관형사: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 ② 관형어: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
②~④문단	[관형어의 실현] 관형어 – ②문단 관형사 – ③문단 → 특징 ① 조사와 결합 (×), ② 형태 변화 (×) 체언 + 관형격 조사 – ④문단 → 체언 + '의'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 ④문단 → 종류 ① 동사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 종류 ② 형용사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체언 – ③문단 → 체언이 나란히 오고 앞의 체언이 뒤의 체언을 꾸미는 경우

11 정답 ④ ＊관형사와 관형어 파악하기 ★1등급 대비

[① 6% ② 3% ③ 6% ④ 44% ⑤ 39%]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답 틀렸나?

관형사와 관형어를 헷갈린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윗글을 통해 관형어가 실현되는 유형이 네 가지이고,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앞에 오는 명사가 관형어에 해당함을 파악했어야 했다.

왜 정답?

④ 두 명사가 나란히 올 때 앞 명사는 관형사가 될 수 있군.
관형어

*근거: ③문단 ❺문장

(가) 헌 / 집이지만 / 나는 / 고향 / 집이 / 정겹다.
〈문장 성분〉 〈품사〉 / 관형어 명사 / 주어 명사+조사 / 서술어 형용사

(가)에서 '고향'은 명사로, 문장 내에서 명사 '집'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지만, 품사는 그대로 명사이다.

즉, 두 명사가 나란히 올 때 앞 명사는 문장 성분 중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지만, 이때 품사가 바뀌지는 않는다.

왜 오답?

① 관형사는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군.

***근거:** ③문단 ❷문장

관형사는 고정된 형태로만 쓰이므로 형태 변화가 없다.

② 관형사와 관형어는 모두 체언을 꾸며 주는군.

***근거:** ①문단 ❷문장

관형사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체언을 꾸미는 품사이며, 관형어 또한 체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③ 관형어가 항상 관형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아니군.

②문단 ❸문장 관형사 이외에도 체언과 관형격 조사의 결합,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체언 자체로도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⑤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관형사가 될 수 없군.

***근거:** ④문단 ❷문장

(나) 할아버지의 집을 고쳐서 예쁜 집으로 만들었다.
〈문장 성분〉 〈품사〉 관형어 형용사 부사어 명사 + 조사 서술어 동사

(나)에서 '예쁜'은 형용사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이다. 문장 내에서 명사 '집'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며, 품사는 그대로 형용사이다.

즉,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면 문장 성분으로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지만, 품사가 바뀌지는 않는다.

매력 오답 형용사와 관형사를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관형사는 형태 변화가 불가하므로, '예쁘다'라는 기본형이 형태 변화한 '예쁜'은 형용사임을 알아야 했다.

12 정답 ② ＊관형어 파악하기 ····· [정답률 6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을 탐구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ㄱ. 새 가구는 어머니의 자랑거리이다. ____ : 관형어
관형사 명사 + 관형격 조사
ㄴ. 모든 아이들이 달리는 사자를 구경했다.
관형사 동사(동사 어간 + 관형사형 어미)
ㄷ. 그들은 오랫동안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
형용사 (형용사 어간 + 관형사형 어미)
ㄹ. 우리 가족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체언 동사(동사 어간 + 관형사형 어미)
ㅁ. 대부분의 학생이 여름 바다를 간절하게 그리워했다.
명사 + 관형격 조사 체언

왜 정답 • 오답?

	문장	탐구 정리 내용		
		관형어 개수	관형어	품사
①	ㄱ	~~1~~ 2	어머니의 + 새	명사 + 조사 + 관형사
②	ㄴ	2	모든	관형사
			달리는	동사 (동사 어간 + 관형사형 어미)
③	ㄷ	1	친한	~~관형사~~ 형용사
④	ㄹ	~~1~~ 2	가던 + 우리	동사 + 대명사
⑤	ㅁ	2	여름	명사
			~~간절하게~~ 대부분의	~~형용사~~ 명사 + 조사

13 정답 ② ＊음운 변동 파악하기 ★1등급 대비

[① 6% ② 38% ③ 5% ④ 35% ⑤ 12%]

〈보기〉는 음운 변동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❶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있습니다. ❷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 음운 개수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❸ 제시된 단어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있는 대로 모두 찾고 음운 개수의 변화를 정리해 볼까요?
음운 변동의 유형 ① '교체' 유형 ② '탈락' 유형 ③ '첨가' 유형 ④ '축약'

왜 틀렸나?

각 단어가 어떤 음운 변동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음운 개수의 변화는 어떠한지까지 파악해야 하는 문제였다. 음운 개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왜 정답?

단어	음운 변동 종류	음운 개수의 변화
② 뚫는[뚤른]	교체, 탈락	하나가 줄어듦.

뚫는 → [뚤는] (자음군 단순화 (탈락)) → [뚤른] (유음화 (교체)) → 음운 1개 줄어듦.

왜 오답?

단어	음운 변동 종류	음운 개수의 변화
① 국밥[국빱]	~~첨가~~ 교체	~~하나가 늘어남.~~ 변화 없음.

국밥 → [국빱] (된소리되기 (교체)) → 음운 개수 변화 없음.

단어	음운 변동 종류	음운 개수의 변화
③ 막내[망내]	교체, 축약	~~하나가 줄어듦.~~ 변화 없음.

막내 → [망내] (비음화 (교체)) → 음운 개수 변화 없음.

단어	음운 변동 종류	음운 개수의 변화
④ 물약[물략]	~~첨가~~ 첨가, 교체	하나가 늘어남.

물약 → [물냑] (ㄴ 첨가 (첨가)) → [물략] (유음화 (교체)) → 음운 1개 늘어남.

매력 오답 '물약'에서 '약'의 초성을 'ㅇ'으로 착각한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약'의 초성은 빈 자리임을 알고, 음운 개수를 셀 때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단어	음운 변동 종류	음운 개수의 변화
⑤ 밟힌[발핀]	축약	~~변화 없음.~~ 음운 1개 줄어듦.

밟힌 → [발핀] (거센소리되기 (축약)) → 음운 1개 줄어듦.

15 정답 ② ＊높임 표현 파악하기 [정답률 7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❶높임 표현은 높임 대상에 따라 주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❷높임 표현은 크게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에 의해 실현된다.❸문법적 수단은 조사나 어미를, 어휘적 수단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기 2〉

[대화 상황]

손님: ㉠ 어머니께 선물로 드릴 신발을 찾는데, ㉡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점원: ㉢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는 손님들께서 이 제품을 많이 사 가셔요.
㉣ 할인 중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손님: 좋네요. ㉤ 저도 어머니를 뵙고, 함께 와야겠어요.

왜 정답?

② ㉡: 선어말 어미 '-으시-'와 조사 '요'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의 '(어머니께서) 편하게 신으실'에서는 문법적 수단으로 주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주어의 지시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제품이 있을까요?'는 문법적 수단으로 상대 높임이 실현되었다.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를 사용하여 청자인 '점원'을 높이고 있다.

왜 오답?

① ㉠: 문법적 수단과 어휘적 수단을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에서는 문법적 수단으로 부사격 조사 '-께', 어휘적 수단으로 특수 어휘 '드리다'가 사용되었다. 둘 다 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③ ㉢: 동사 '모시다'와 조사 '께서'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부모님을 모시고'에서는 어휘적 수단으로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목적어의 지시 대상인 '부모님'을 높이고 있다.

'손님들께서'에서는 문법적 수단으로 주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어의 지시 대상인 '손님들'을 높이고 있다.

④ ㉣: 문법적 수단을 통해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

㉣의 '가격도 저렴합니다'에서는 문법적 수단으로 상대 높임이 실현되었다. 높임의 종결 어미 '-ㅂ니다'를 활용하여 청자인 '손님'을 높이고 있다.

⑤ ㉤: 어휘적 수단을 통해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에서는 어휘적 수단으로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특수 어휘 '뵙다'를 통해 목적어의 지시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16~20 ＊mRNA 백신과 지질 나노 입자

출제 ⬭ 글 전체 핵심어 ▭ 글 전체 중심 문장

❶[1]❷[세포핵 속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mRNA로 전사되어 세포질로 내보내진 후 리보솜을 통해 단백질로 합성]된다.❷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기생체로, [생물체에 침입하여 자신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꾼 뒤 숙주 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한다.]❸이에 대항해 생물체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거나 기억 세포를 생성해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한다.❹따라서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 낸 물질인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바이러스 감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 ]: 유전 물질을 통해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 ]: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 물질을 숙주 세포에 퍼뜨리는 방법
바이러스 감염에 이용됨.
생물체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방법 ①
생물체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방법 ②
항체를 미리 만들어 두면

전사되다: 디엔에이(DNA)의 유전 정보가 일단 전령 아르엔에이(RNA)에 옮겨지다. 유전 정보의 복사물인 전령 아르엔에이(RNA)가 단백질을 합성한다.

＊①문단 요약: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백신

❶[2]❷[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 mRNA를 접종하는 것]으로, 주입된 mRNA를 통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❷[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mRNA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으며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❸반면 [이처럼 체내에서 불안정할 뿐 아니라 분자의 크기가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❹따라서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다.

[ ]: mRNA 백신의 특징 – 기존 백신과의 차이점
[ ]: mRNA 백신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
mRNA 백신의 문제점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는 이유 – mRNA 백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②문단 요약: mRNA 백신의 특징과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는 이유

❶[3]❷지질 분자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소수성을 갖는다.❷[물은 분자 내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즉 친수성 물질과만 섞이고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과만 섞이기 때문]이다.❸한편 [㉠ 생물체의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되는데,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와 음전하를 띤 ⓑ 인산기 머리를 갖고 있다.]❹따라서 인지질은 친수성 용매나 소수성 용매 모두와 섞이는 양친매성 물질이다.❺이에 따라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세포 외부나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고]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 서로 몰려 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된다.❻세포막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차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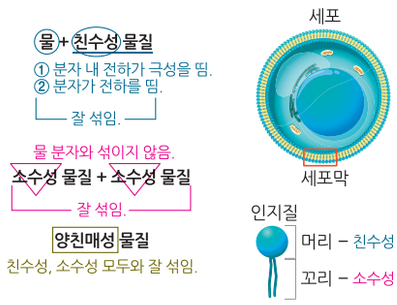
[ ]: 소수성 물질이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이유
[ ]: 생물체 세포막 = 인지질(소수성 꼬리+인산기 머리)로 구성
꼬리는 소수성, 머리는 친수성이기 때문
[ ]: 친수성 물질끼리 어울림.
[ ]: 소수성 물질끼리 어울림.

친수성: 물과 친화성이 있는 성질 **소수성**: 물과의 친화력이 적은 성질
양친매성: 극성인 물과 비극성인 기름 모두에 친화적인 성질

＊③문단 요약: 세포막의 구성과 특징

3문단 지문 이해도

＊ 세포의 구성과 특징



❹❶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면 mRNA와 세포막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❷[음전하를 띤 mRNA가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이면 음전하를 띤 세포막의 인산기 머리와 서로 반발하지 않기 때문]이다.❸그런데 양이온성 지질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mRNA를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체내에서는 양이온성 지질에 ⓒ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어 mRNA의 세포막 투과가 제한]된다.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는 것의 장점
[ ]: 양전하와 음전하가 만나면 서로 반발하지 않음.
[ ]: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이용하여 체내에서 쓸 때의 문제점
음전하: 양이온성 지질에 달라붙음.

〔**혈장 단백질**: 혈장 중에 포함된 단백질

＊❹문단 요약: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는 것의 장점과 문제점

❺❶따라서 용액의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의 재료로 사용한다.❷[pH가 낮은 용액(산성)에서는 수소 이온 농도가 높으므로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화된다.❸반면 pH가 높은 용액에서는 수소 이온을 적게 받아들여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❹즉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킨 뒤 pH를 높이면 중성의 'mRNA –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들 수 있고, 이 복합체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내포 작용에 의해 세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❺내포 작용이란 일종의 생화학적 싱크홀 현상으로,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함입되는 현상이다.❻내포 작용이 일어나면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된다.❼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는 산성화되는데, 이에 따라 ㉡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솜 막이 불안정해져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된다.❽그리고 방출된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하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고 기억 세포를 생성함으로써 인체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 ]: mRNA의 세포막 투과를 제한하던 문제(혈장 단백질 흡착)를 해결했으므로
혈장 단백질은 양이온성 지질에 흡착되므로
엔도솜 막의 불안정 ➔ 음전하를 띤 인산기의 머리와 결합 ➔ 엔도솜 막 붕괴 ➔ mRNA 방출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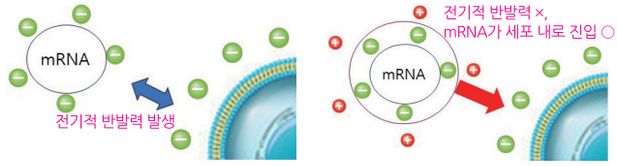
〔**함입되다**: 표면에 있는 세포층의 일부가 안쪽으로 빠져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층이 만들어지다.

＊❺문단 요약: 이온화 지질을 나노 입자 지질로 사용하는 mRNA 백신

＊pH: 수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성 수용액의 pH는 7이며, 산성 용액에서는 7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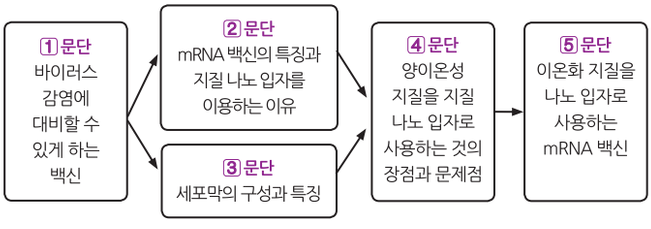
■ 전체 지문 이해도

＊ mRNA 백신과 지질 나노 입자



■ 지문 내용과 구조

①문단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백신** 백신: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 낸 물질 ➔ 바이러스에 대한 생물체의 대항 유도
②문단	**mRNA 백신의 특징과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는 이유** – mRNA 백신의 특징: ①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 × ②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 ➔ 불안정함. ③ 분자의 크기 ↑, 음전하를 띰. ➔ 세포에 거의 흡수 × –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질 나노 입자' 이용
③문단	**세포막의 구성과 특징** – 생물체의 세포막 = 인지질(소수성 꼬리+인산기 머리)로 구성됨.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차단됨.
④문단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는 것의 장점과 문제점** – 음전하를 띤 mRNA가 음전하를 띤 세포막의 인산기 머리와 만나면 전기적 반발력 발생 ➔ mRNA를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는 방법으로 해결 – 문제점: 체내에서는 양이온성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어 mRNA의 세포막 투과가 제한됨.
⑤문단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는 mRNA 백신** – 이온화 지질 = 용액의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지질 pH가 낮은 용액 | 수소 이온 농도↑ ➔ 양이온화 pH가 높은 용액 | 수소 이온 농도↓ ➔ 중성 – 인체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는 과정: 중성의 mRNA –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 생성 ➔ 내포 작용(세포막의 일부와 복합체가 함께 세포질로 함입) ➔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 형성 ➔ 엔도솜 내부 산성화 ➔ 엔도솜 막 불안정 ➔ mRNA가 세포질로 방출 ➔ mRNA+리보솜 결합 ➔ 바이러스 단백질 합성 ➔ 기억 세포 생성



■ 주제: mRNA 백신에서 지질 나노 입자를 사용하는 이유

18 정답 ⑤ ＊내용 파악하기 ★1등급 대비

[① 17% ② 11% ③ 21% ④ 21% ⑤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 틀렸나?

글에 제시된 정보량이 많고, 정보 간 관계도 묻고 있어 ⓐ~ⓓ의 개념과 특성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아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 ⓐ~ⓓ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특성	
ⓐ	mRNA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것으로, 음전하를 띰.	
ⓑ	인산기 머리	음전하를 띰.	
ⓒ	혈장 단백질	양이온 지질에 흡착되어 mRNA의 세포막 투과 제한	
ⓓ	이온화 지질	pH가 낮을 때	양이온화
		pH가 높을 때	중성 → 혈장 단백질 흡착 ×

오 정답 ?

⑤ ~~ⓐ와 결합하면서~~ ⓓ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가 흡착되는 현상이 억제된다.

ⓐ와 결합하면서: pH가 높은 용액에서 / ⓓ: 이온화 지질 / ⓒ가 흡착되는: 혈장 단백질은 양이온성 지질에 흡착됨.

> 4문단 3문장 ~ 체내에서는 양이온성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어 ~
> 5문단 3문장 반면 pH가 높은 용액에서는 ~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이유는 pH가 높은 용액에 있었기 때문이지만 ⓐ'mRNA'와 결합했기 때문이 아니다.

양이온성 지질에 흡착되는 ⓒ '혈장 단백질'은 음전하를 띠므로 ⓒ가 ⓓ에 흡착되는 현상이 억제되는 이유는 ⓓ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 오답 ?

① ⓓ는 ⓐ가 체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인공 외막으로 기능한다.

외막으로: 몸 안 기관의 겉쪽에 있는 막

> 2문단 2, 4문장 mRNA 백신은 ~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 ~ 따라서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다.
> 5문단 1문장 ~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의 재료로 사용한다.

ⓐ 'mRNA'가 체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이온화 지질'을 재료로 사용한 외막, 즉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mRNA를 보호한다.

② ⓐ와 ⓑ는 모두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둘 사이에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둘 사이에 서로를 밀어내는: 전기적 반발력

> 2문단 3문장 (mRNA 백신은) ~ 음전하를 띠고 있어 ~
> 3문단 3문장 ~ 음전하를 띤 인산기 머리 ~
> 4문단 1문장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면 mRNA와 세포막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mRNA'와 ⓑ '인산기 머리'는 같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여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③ ⓐ가 리보솜에 전달되려면 세포 밖에서 ⓓ와 결합한 후 세포 안에서 ⓓ와 분리되어야 한다.

세포 밖에서: 체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서 따로 분리되어야 리보솜과 결합할 수 있음.

> 5문단 4~8문장 ~ 'mRNA –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들 수 있고, 이 복합체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내포 작용에 의해 세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솜 막이 불안정해져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된다. 그리고 방출된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하여 ~

ⓐ 'mRNA'가 체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으려면 세포 밖에서 양이온화 상태인 ⓓ '이온화 지질'과 결합하여야 하며, 세포 안에서는 ⓓ '이온화 지질'과 분리되어야 리보솜을 통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매력 오답 mRNA가 리보솜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온화 지질이 하는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③을 정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온화 지질은 mRNA가 무사히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보호하고, 세포 내 진입 후에는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할 수 있도록 따로 분리되어야 한다.

④ ⓒ는 음전하를 띠는 반면 ⓓ는 주변에 분포하는 수소 이온의 양에 따라 이온화의 정도가 변화한다.

ⓒ는: 양이온성 지질에 흡착 / 수소 이온의 양에: 수소 이온의 농도 지표 = pH

> 4문단 3문장 ~ 체내에서는 양이온성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어 mRNA의 세포막 투과가 제한된다.
> 5문단 1~3문장 ~ 용액의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이온화 지질을 ~ pH가 높은 용액에서는 수소 이온을 적게 받아들여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

ⓒ '혈장 단백질'은 양이온성 지질과 흡착되므로, 음전하를 띠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매력 오답 양이온성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된다는 것을 통해 혈장 단백질이 음전하를 띤다는 점을, 수소 이온의 양과 관련된 지표가 pH라는 점을 추론하지 못했다면 틀리기 쉬운 선택지이다.

19 정답 ⑤ ＊구체적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기 ★1등급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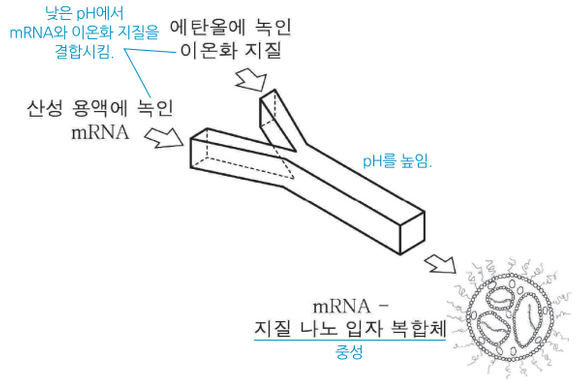
[① 5% ② 10% ③ 19% ④ 25% ⑤ 39%]

〈보기〉는 'mRNA –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❶ 산성 용액에 녹인 mRNA와 에탄올에 녹인 이온화 지질을 Y자 형태의 미세관에 일정한 속도로 흘려보낸다.❷이렇게 혼합된 용액을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투석 처리하여 pH를 높인다.❸그리고 에탄올을 제거하여 균일한 상태의 mRNA –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얻어낸다.❹(단, 이때 에탄올의 pH는 7임.)

산성 용액에 녹인 mRNA: pH가 7보다 낮은 용액 / 에탄올에 녹인 이온화 지질: pH가 7인 중성 용액 / 완충 용액: 혼합된 용액의 pH는 7보다 낮아짐. / ❷: 각 용액 속 mRNA와 이온화 지질의 양이 일정하게 조절됨. / pH를 높인다: 투석 처리의 결과,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화됨. / ❹: 중성 용액



오 틀렸나?

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론하여 〈보기〉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많았다.

윗글을 바탕으로 'mRNA-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 형성 과정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pH가 높아짐. → 이온화 지질이 중성화됨. → 중성은 극성을 띠지 않는 상태이므로 소수성 물질, 소수성 강해짐. → 소수성 분자 간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증가함. → mRNA -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의 크기가 더욱 커짐.

윗글	〈보기〉에 적용
3 문단 2 문장 인(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임.	ⓑ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수령들 → 인을 성취하지 못한 것임.
2 문단 4 문장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짐.	– 백성들이 굶주리며 고통받으나 ⓑ 수령들이 돌보지 않은 것 → 악을 선택한 것임. – 조정의 관원들: 자유의지 ○, 백성들을 돌볼 수도 있고 돌보지 않을 수도 있음.
4 문단 3 문장 서(恕)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임.	– 임금이 관원들에게 백성들을 돌보라고 함. 즉, 서로써 대하도록 함. – 임금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수령들을 징계함.
– 4 문단 1, 2 문장 서는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임. – 3 문단 4 문장 위정자로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면 인을 성취할 수 있음.	임금과 조정의 관원들이 백성들을 돌보면 서를 실천하는 것임. → 이를 통해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게 되면 인을 성취하게 됨.

오답 정답 ?

⑤ ⓓ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에 의한 것이므로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겠군.

'조정의 관원' 선과 악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임.

2 문단 4 문장 즉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 '조정의 관원'은 ⓒ '나', 즉 임금에 의해 파견되었지만,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 자유의지로 한 선택에 따른 책임은 ⓓ 스스로가 져야 한다.

오답 오답 ?

① ⓐ를 서(恕)로써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 인을 성취할 수 있겠군.

'백성들'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 '조정의 관원'

4 문단 1, 2 문장 그렇다면 정약용이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로 제시한 것이 무엇일까? 서(恕)이다.

'백성들'

② ⓑ는 ⓐ와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지 못하였군.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수령들'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

3 문단 4 문장 특히 위정자로서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인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위정자, 즉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인을 실천하려 하였다. 그러나 〈보기〉의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수령들'은 ⓐ'백성들'이 고통받게 그대로 두었으므로, 인을 성취하지 못했다.

'나'(= 왕, 세종) '백성들'

③ ⓒ는 ⓑ에게 한 행위를 통해 ⓐ와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였군.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아 징계함.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함.

∗ 근거: 3 문단 4 문장, 〈보기〉 2

ⓒ '나'는 ⓑ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수령들'을 징계함으로써 ⓐ '백성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였다.

'조정의 관원' '백성들'

④ ⓒ는 ⓓ가 서(恕)로써 ⓐ를 대하기를 바라겠군.

'나'(= 왕, 세종)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백성들'에게 하지 않는 것

4 문단 3 문장 정약용이 말하는 서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보기〉 4 부덕한 나로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모습들을 모두 다 알 수 없으니, 수령과 같은 백성과 가까운 관원들은 나의 이 진심 어린 뜻을 새겨, 관할 구역의 백성들이 굶주려 떠돌아다니지 않게끔 유의하라.

ⓒ'나'는 ⓓ'조정의 관원'이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정의 관원' 본인의 일신이 편안하고 싶은 만큼 ⓐ'백성들'도 고통받지 않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돌보기를 바랐다.

39~42

(가) 이황, 〈만보(晩步)〉

한자 읽기 # 출제 ❶ 화자, 중심 대상 ❷ 상황, 정서, 태도 ❸ 표현상 특징

❸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❸ 독백적 어조를 사용함.

선경

❶ 고 망 란 추 서
苦忘亂抽書 잊기를 자주 하여 어지러이 뽑아 놓은 책들

❷ 산 만 환 복 정
散漫還復整 흩어진 걸 다시 또 정리하자니

∗**선경후정**: 앞부분에 경치를, 뒷부분에 정서를 담는 구성
∗**독백적 어조**: 혼자서 말하는 듯한 어조

❸ 요 령 홀 서 퇴
曜靈忽西頹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
시간적 배경: 해질녘

❹ 강 광 요 림 영
江光搖林影 강 위에 숲 그림자 흔들린다.

∗❶~❹ 요약: 화자가 책을 정리하다가 해질녘이 됨.

❺ 부 공 하 중 정
扶笻下中庭 막대 짚고 마당 가운데 내려서서

❻ 교 수 망 운 령
矯首望雲嶺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 바라보니

❼ 막 막 취 연 생
漠漠炊烟生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❽ 소 소 원 야 랭
蕭蕭原野冷 ❶ 대상: 가을 들판
쓸쓸히 들판은 서늘하구나.
❷ 상황: 산책을 하며 가을 들판을 바라봄.

∗❺~❽ 요약: 가을 들판을 바라봄.

❾ 전 가 근 추 확
田家近秋穫 농삿집 가을걷이 가까워지니
계절적 배경: 가을

❿ 희 색 동 구 정
喜色動臼井 절구질 우물가에 기쁜 빛 돌아

❷ 상황: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가의 모습을 봄. [A]

⓫ 아 환 천 기 숙
鴉還天機熟 갈까마귀 돌아오니 절기가 무르익고
□: 계절감을 드러내는 자연물

⓬ 로 립 풍 표 동
鷺立風標迥 해오라기 서 있는 모습 우뚝하고 훤하다.

∗❾~⓬ 요약: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가의 모습을 봄.

후정

❶ 화자: '나' ❸ 대조법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부각함.

⓭ 아 생 독 하 위
我生獨何爲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것인지
❷ 상황: 스스로의 학문적 성취를 돌아봄.

∗**대조법**: 서로 반대되는 대상을 내세워 강조의 효과를 내는 표현 방법

⓮ 숙 원 구 상 경
宿願久相梗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 ]: ❷ 정서 - 고민하며 시름을 느낌.

⓯ 무 인 어 차 회
無人語此懷 이 **회포** 털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

⓰ 요 금 탄 야 정
搖琴彈夜靜 **거문고만 둥둥** 탄다, **고요한 밤**에.
❷ 태도: 시름을 다스리려 함.

〔**숙원**: 오래전부터 품어 온 염원이나 소망 **회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情)〕

∗⓭~⓰ 요약: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돌아보며 고민함.

(가) 독해 공식

❶ **화자: '나', 중심 대상**: 가을 들판
❷ **상황**: 산책을 하며 가을 들판을 바라봄.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가의 모습을 봄. 스스로의 학문적 성취를 돌아봄.
정서: 고민하며 시름을 느낌.
태도: 시름을 다스리려 함.
❸ **표현상 특징**
-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독백적 어조를 사용함.
- 대조법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부각함.

■ **갈래:** 한시, 5언 배율

■ **글쓴이:** 이황(李滉, 1502~157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심도 있는 주자학 연구로 조선 성리학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표 작품으로 〈도산십이곡〉이 있다.

■ **제목의 의미:** '해 저물 만(晩)+걸음 보(步)', '해질녘에 걸으며'라는 뜻이다.

■ **이 작품은?** 추수의 계절인 가을에 수확할 것이 많아 보이는 들판과 달리 학문적 성취는 자신이 목표한 바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성찰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은 시이다.

■ **주제:** 학문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과 성찰

■ **이것이 핵심!:** **대조를 통한 시상 전개**

가을 들판	↔ 대조	화자
가을걷이가 가까워지니 수확할 것이 많음.		학자로서 목표한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함. (수확할 것이 없음.)

(나) 윤동주, 〈별똥 떨어진 데〉

출제 ❶ 중심 대상 ❷ 글쓴이의 생각, 태도 ❸ 서술상 특징

❶ 중심 대상: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 상황 ＊**음성 상징어**: 소리 혹은 모양을 묘사하는 말

1 밤이다.

❸ 시간적 배경이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됨. # ❸ 음성 상징어를 통해 별들의 반짝임을 표현함.

❷㉠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회색으로 캄캄하나 별들만은 포렷포렷 빛난다. 침침한 어둠뿐만 아니라 오삭오삭 춥다. [㉡ 이 육중한 기류 ❸ 자신을 객관화하여 지칭함으로써 자신이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냄.
가운데 자조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그를 나라고 불러두자.]

[ ]: ❷ 글쓴이의 태도 - 스스로를 자조함.

[나는 이 어둠에서 배태되고 이 어둠에서 생장하여서 아직도 이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하기는 나는 세기의 초점인 듯 초췌하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반듯이 받들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갑박이 내려 누르는 아무것도 없는 듯하다마는 내막은 그렇지도 않다.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 ㉢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희공에 부유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경쾌하다면 마침 다행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구나!

❷ 글쓴이의 생각 -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함. 자신이 '어둠' 속의 존재이며 방향성을 잃었다고 봄.

❸ △: 비유를 통해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나타냄. # ❷ 글쓴이의 생각: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함. - 방황하고 있다고 봄.

이 점의 대칭 위치에 또 하나 다른 **밝음의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듯 생각된다. 덥석 움키었으면 잡힐 듯도 하다.

어두운 곳, 글쓴이가 현재 있는 곳 ↔ 희망의 이미지

마는 그것을 **휘잡**기에는 나 자신이 둔질*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배포*치 못한** 것이 아니냐. ㉣ 그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

'나'가 밝음의 초점을 움켜쥐지 못하는 원인

❸ 행복을 의인화하여,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함을 드러냄.

이 밤이 나에게 있어 어릴 적처럼 한낱 공포의 장막인 것은 벌써 흘러간 전설이요, 따라서 이 밤이 향락의 도가니라는 이야기도 나의 염두에선 아직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다. 오로지 밤은 나의 도전의 호적(好敵)*이면 그만이다.

이것이 생생한 관념 세계에만 머무른다면 애석한 일이다. [어둠 속에 깜박깜박 졸며 다닥다닥 나란히 한 초가들이 아름다운 시의 화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제너레이션의 이야기]요, 오늘에 있어서는 다만 말 못 하는 비극의 배경이다.

[ ]: '어둠', '밤'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이 되었던 것은 지난날의 이야기임.

지금 '나'가 사는 밤 = 암울한 비극의 시대

㉤ 이제 닭이 홰를 치면서 맵짠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몰아 동 켠으로 훤–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하자.

❸ 새벽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❸ : 가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황을 제시함.

하나 경망스럽게 그리 반가워할 것은 없다. 보아라, 가령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을은 그대로 암담하고 나도 그대로 암담하고 하여서 너나 나나 이 가랑지길*에서 주저주저 아니치 못할 존재들이 아니냐.

닭이 울고 새벽이 온다하더라도 밤은 끝나지 않음.

〔**농회색**: 짙은 잿빛

＊[1] 요약: '밤'과 같이 어두운 현실에서 느끼는 삶에 대한 고뇌

❷ 글쓴이의 생각: 나무를 행복한 존재라고 생각함.

[2] ❶나무가 있다.

❸ : 나무를 의인화하여 나무에 대한 친근함을 드러냄.

❷❶ 중심 대상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요, 벗이다. ❸그렇다고 그와 내가 성격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한 데 있어서가 아니다. ❹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도 애정이 관통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교분의 한 표본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❷ 글쓴이의 태도: 나무를 긍정적으로 봄.

❷ 글쓴이의 생각: 나무가 자신과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함.

❺나는 처음 그를 퍽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❻그의 앞에 설 때 슬퍼지고 측은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 ❼마는 오늘 돌이켜 생각건대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없을 듯하다. ❽굳음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탁지는 못할망정 자양분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의 불평이 있을쏘냐. ❾칙칙하면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 촐촐하면 한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고—보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써든 탄생시켜 준 자리를 지켜 무진무궁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빛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으냐.]

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처음의 인식

❸ 글쓴이의 인식의 변화가 드러남.

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지금의 인식

[ ]: 나무가 행복한 이유 – 나무는 행동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없음.

❿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옳아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랑을 자랑치 못함에 뼈저리는 듯하나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이 왈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니 그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❷ 글쓴이의 생각: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고민함.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는 '나'의 부끄러움에 나무의 마음이 영향을 미침.

⓫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⓬아라! 저 별이 번쩍 흐른다. ⓭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⓮하면 **별똥**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

❷ 글쓴이의 태도: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자신이 꼭 가야만 하는 올바른 길로 정해지기를 소망함.

〔**관통하다:** 꿰뚫어서 통하다. **교분:** 서로 사귄 정
표본: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 **측은하다:** 가엾고 불쌍하다.

＊[2] 요약: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하여 성찰함.

＊**배태:** 아이나 새끼를 뱀. ＊**둔질:** 둔한 성질이나 기질
＊**배포:** 머리를 써서 일을 조리 있게 계획함.
＊**호적:** 실력이 비슷하여 상대가 될 만한 좋은 적 ＊**가랑지길:** 갈림길

(나) 독해 공식

❶ **중심 대상:** 밤(어둠), 나무

❷ **글쓴이의 생각:**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함. 나무가 자신과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함. 나무를 행복한 존재라고 생각함.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고민함.
태도: 스스로를 자조함. 나무를 긍정적으로 봄.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자신이 꼭 가야만 하는 올바른 길로 정해지기를 소망함.

❸ **서술상 특징**
- 시간적 배경이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됨.
- 음성 상징어를 통해 별들의 반짝임을 표현함.
- 자신을 객관화하여 지칭함으로써 자신이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냄.
- 비유를 통해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나타냄.
- 행복을 의인화하여,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함을 드러냄.
- 새벽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 가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황을 제시함.
- 나무를 의인화하여 나무에 대한 친근함을 드러냄.
- 글쓴이의 인식의 변화가 드러남.

■ **갈래**: 현대 수필
■ **글쓴이**: 윤동주(尹東柱, 1917 ~ 1945), 국권 침탈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를 다수 창작하였다.
■ **이 작품은?** 글쓴이가 밤으로 표현되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쓴 글이다. 글쓴이는 우연으로든 인위적으로든 어디에서나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가는 나무를 보며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자신이 꼭 가야 하는 올바른 길로 정해지길 바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 **주제**: 부정적 현실에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부끄러움

■ **이것이 핵심!**: **나무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나'의 태도**

원래의 '나'
- 행복하지 못한 존재
-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함.
- 삶의 방향성을 찾고 싶어함.

↓ 나무의 영향

나무
- 행복한 존재
- 삶의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없음.
- 어디에서든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람.

변화된 '나'
- 별똥 떨어진 데를 자신이 갈 곳으로 생각함.
- 별똥이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지기를 바람.
- 자신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 길로 정해지기를 소망함.

왜 두 작품?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는 두 작품이 함께 묶여 출제되었다.
(가)의 경우 학자로서의 자신의 삶과 학문적 성취에 대해 성찰하고 있으며, (나)의 경우 식민지 현실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드러나 있다.

39 정답 ③ ∗작품 비교하기 ····· [정답률 7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왜 정답?

③ 시간적 배경의 의미를 활용하여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가): 해질녘, (나): 밤

∗ 근거: (가) ❸, (나) ①-❶

(가)의 화자는 해질녘에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돌아보고 있다. 저녁 무렵이라는 이 시간적 배경은 인생의 황혼을 의미하기도 하여, 화자가 학자로서 목표한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시름을 느끼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어둠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부정적 상황을 의미한다. 글쓴이는 '밤'에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 고뇌하고 있다.

왜 오답?

① 공간의 대비를 통해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가) X, (나) X　(가) X, (나) X

②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 X, (나) X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며 강조의 효과를 주는 방법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 X, (나) X　(가) X, (나) X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가) X, (나) ○

∗ 근거: (나) ①-㉓, ②-❾

(나)에서만 '주저주저 아니치 못할 존재들이 아니냐', '행복스럽지 않으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40 정답 ⑤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 파악하기 ····· [정답률 6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 정답?

⑤ ㉤: 가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자.'　'그리 반가워할 것은 없다.'

(나) ②-㉑~㉓ ㉤이제 닭이 홰를 치면서 맵짠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몰아 동 켠으로 훤-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하자. ~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을은 그대로 암담하고 나도 그대로 암담하고

'~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하자'라는 부분에서 가정적 진술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진 않는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리 반가워할 것은 없'으며,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을은 그대로 암담'할 것이라고 서술한 것에서 여전히 현실 상황은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 오답?

① ㉠: 음성 상징어를 통해 희망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또렷또렷'　별이 빛나고 있음.

(나) ①-❷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회색으로 캄캄하나 별들만은 또렷또렷 빛난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만은 또렷또렷 빛난다'라고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별이 빛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어둠과 같은 현실 상황에서 '별'이 '또렷또렷' 빛나는 것은 희망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 자신을 객관화하여 지칭하며 암담한 상황에서 자신을 비웃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자조하는 한 젊은이'　'그를 나라고 불러두자.'

(나) ①-❹ ㉡이 육중한 기류 가운데 자조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자조하는 한 젊은이'가 있고, '그를 나라고 불러두'자라고 한 것에서 글쓴이가 자신을 '젊은이'라고 객관하여 지칭하며 자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 자신과 유사한 처지의 대상을 통해 방황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허공에 부유하는 것처럼 글쓴이 역시 방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①-⓫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④ ㉣: 대상을 의인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행복'이라는 대상을 '별스러운 손님'에 빗댐.　한 가닥 구실을 치러야 함.

(나) ①-⓰ ㉣그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

'행복'이라는 대상을 '별스러운 손님'에 빗대어 의인화하였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라며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매력 오답 ㉣'그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라는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 구절은 '행복을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했다.

40번 관련 어휘
가정적: 가상하여 정하는　**음성 상징어**: 의성어와 의태어를 나타내는 말
객관화하다: 자기에게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생각하다.
지칭하다: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다.
암담하다: 어두컴컴하고 쓸쓸하다.

4회 문법·어휘 완성 TEST

01 정답 ② ＊관형사와 관형어 파악하기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가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❶관형사는 단어의 성질 자체가 체언의 수식에 있고,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❷하지만 관형어는 관형사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❸관형사 이외에도 ㉠ 체언과 관형격 조사의 결합, ㉡ 용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 체언 자체로도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줌. / 관형사는 문장 성분이 항상 관형어임. / 관형어의 실현 ① '관형사' / 실현 ② '체언 + 관형격 조사' / 실현 ③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 실현 ④ '체언'

오답 정답 ?

② ㉠: 승리에의 집념만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어.

체언 + 부사격 조사 + 관형격 조사

'승리에의'는 체언인 '승리', 부사격 조사 '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있다.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오답 오답 ?

① ㉠: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은 나의 의지이다.

체언 + 관형격 조사

'나의'는 체언인 '나'와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문장 내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뒤에 오는 체언 '의지'를 수식하고 있다.

③ ㉡: 내가 살던 동네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다.

동사 어간 + 관형사형 어미

'살던'은 동사 어간 '살-'과 관형사형 어미 '-던'이가 결합되어 문장 내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뒤에 오는 체언 '동네'를 수식하고 있다.

④ ㉡: 잘생긴 청년의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다.

동사 어간 + 관형사형 어미

'잘생긴'은 동사 어간 '잘생기-'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가 결합되어 문장 내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뒤에 오는 체언 '청년'을 수식하고 있다.

⑤ ㉢: 동생 물건을 빼앗는 건 옳은 행동이 아니야.

명사

'동생'은 명사 자체로 문장 내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뒤에 오는 체언 '물건'을 수식하고 있다.

02 정답 ⑤ ＊관형사와 관형어 파악하기

〈보기〉의 문장을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명사 + 관형격 조사

ㄴ. 넓은 바다를 마주하곤 가던 걸음을 멈추어 뒤를 돌아 보았다.
형용사 + 관형사형 어미 / 동사 + 관형사형 어미

ㄷ. 두 잘생긴 청년이 역 앞을 지나가자 시선이 집중되었다.
관형사 / 명사 / 동사 + 관형사형 어미

ㄹ. 새 학기가 되었으니 심기일전하여 공부를 해야겠다.
관형사

ㅁ. 언니가 촬영한 사진에서 그 증거를 발견하였다.
동사 + 관형사형 어미 / 관형사

오답 정답 ?

⑤ ㅁ에서 사용된 관형어는 2개이며, 사용된 관형어는 ~~언제나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으로만 쓰인다.

'촬영한', '그' / '촬영한'은 아님.

ㄷ의 관형어는 2개이며, 동사와 관형사형 어미로 구성된 '촬영한', 관형사인 '그'이다.

관형사는 고정된 형태로 쓰이며 언제나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으로만 쓰인다. 그러나 동사의 경우 결합하는 어미에 따라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술어로 사용된다.

오답 오답 ?

① ㄱ에는 명사와 관형격 조사의 결합으로 구성된 관형어가 1개 있다.

'할아버지의'

ㄱ의 '할아버지의'는 명사 '할아버지'와 관형격 조사 '의'로 구성된다.

② ㄴ에서 사용된 관형어는 모두 용언과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넓은'과 '가던'

ㄴ의 '넓은'은 용언 '넓-'과 관형사형 어미 '-은'으로, '가던'은 용언 '가-'와 관형사형 어미 '-던'으로 구성된 관형어이다.

③ ㄷ에는 3개의 관형어가 있으며, 사용된 관형어 중에는 고정된 형태로만 쓰이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두', '잘생긴', '역' / '두', '역'

④ ㄹ에서 사용된 관형어는 뒤에 오는 단어와 품사가 다르다.

'새' / '학기'

ㄹ의 '새'의 품사는 관형사이고, 뒤에 오는 단어인 '학기'의 품사는 명사이다.

03 정답 ④ ＊음운 변동 파악하기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문장을 탐구한다고 할 때, ㄱ~ㅁ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❶선생님: 음운 변동의 종류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습니다. ❷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는 음운 개수가 변하기도 합니다.

탈락, 첨가, 축약

〈보기 2〉

친구와 ㉠같이 경주 여행을 간 날을 잊을 수 ㉡없다. 날씨가 ㉢좋고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이었다. 눈을 감고 신라의 ㉣달밤에 대해 생각했다. ㉤솜이불을 덮고 숙소에 누우니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거센소리되기(축약) / 구개음화(교체) / 자음군 단순화(탈락) – 된소리되기(교체) / 된소리되기(교체) / 'ㄴ' 첨가(첨가)

오답 정답 ?

④ ㉣는 ㉤과 달리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며, 음운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교체

㉣ '달밤'은 된소리되기(교체)가 발생하여 [달빰]으로 발음된다. 음운 개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 '솜이불'은 'ㄴ' 첨가(첨가)가 발생하여 [솜니불]로 발음된다. 음운 개수는 1개 늘어난다.

오답 오답 ?

① ㉠은 ㉡, ㉢과 달리 음운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

그대로임.

㉠ '같이'는 구개음화(교체)가 발생하여 [가치]로 발음된다. 음운 개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 '없다'는 'ㅅ'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탈락)로 [업다]가 되고, 이후 된소리되기(교체)가 발생하여 [업따]로 발음된다. 음운 개수는 1개 줄어든다.

㉢ '좋고'는 'ㅎ'과 'ㄱ'이 만나 거센소리되기(축약)가 발생하여 [조코]로 발음된다. 음운 개수는 1개 줄어든다.

② ~~㉡~~에서는 ~~㉢~~와 달리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 ㉡ / 축약

㉡ '없다'는 'ㅅ'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탈락)로 [업다]가 되고, 이후 된소리되기(교체)가 발생하여 [업따]로 발음된다.

㉢ '좋고'는 'ㅎ'과 'ㄱ'이 만나 거센소리되기(축약)가 발생하여 [조코]로 발음된다.

③ ㉢에서는 ~~㉣~~과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며, 음운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

㉢, ㉣에서 모두 아님. / 탈락

㉢ '좋고'는 'ㅎ'과 'ㄱ'이 만나 거센소리되기(축약)이 발생하여 [조코]로 발음된다. 음운 개수는 1개 줄어든다.

㉣ '달밤'은 된소리되기(교체)가 발생하여 [달빰]으로 발음된다. 음운 개수는 변화하지 않는다.